

아요. 실습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가장 주문이 많고 바쁜 기간이었는데 엄청 다양한 관엽수, 초화, 분재, 화훼류가 빠르게 대량으로 입고됐다가 급방 판매되고 다시 입고되는 사이클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또 제가 현장 교수님께 처음 분갈이를 배웠을 때 ‘시클라멘’이란 꽃으로 실습을 해서 그런지 시클라멘을 보면 대한꽃시장에서 실습하던 때가 떠오르게 돼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과수연구소에서 실습한 윤호 학우

Q6.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은?
찬우: 가장 먼저, 실습에서 토마토 재배 시작과 끝을 직접 경험했고 재배 기술을 익혔습

니다. 그리고 실제 농장에서 일을 하면서 사회생활도 저절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다를 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실습이 끝나갈 때에는 조금 더 열정을 다해 볼걸, 아쉬운 마음이 들면서도, 힘든 순간들을 다 겪어낸 제가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실습을 마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윤호: 과수연구소 무화과 파트에서 가장 확실히 배운 것은 무화과에 관한 재배 기술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개월 동안 무화과 한 가지에만 집중하며 무화과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모습을 직접 보고 느끼니 무화과 재배 기술만큼은 확실하게 익힌 것 같습니다. 또 과수연구소에서 발간한 무화과 재배 매뉴얼을 농진청과 과수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워서 과수연구소에서의 실습 경험과 지식이 저에게는 든든한 자산이 된 것 같습니다.

효주: 예전의 저는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어려웠어요. 실습 초반 때는 작업 중이신 사장님을 대신해 제가 손님 응대를 담당했는데, 아무래도 지역에서 가장 큰 꽃가게이다 보니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습하는 동안 다양한 손님을 응대

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하다 보니 말하는 실력이 늘었고, 자신감도 생겼어요. 물론 현장 교수님께 초화류의 다양한 상품 판매와 응용 그리고 가드닝 기술도 많이 익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려워했던 말하기 실력이 는 것은 제 자신이 한층 성장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효주 학우가 실습한 대한꽃시장

Q7. 곧 실습을 가게 될 1학년 후배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다면?

찬우: 지금부터 실습장을 자세히 알아보고, 자신에게 맞는 곳을 찾으시길 바라요. 실습하면서도 8개월이란 시간을 대충 보내지

말고 열심히 땀 흘리고 실습하며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실습하러 온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배우러 실습을 온 것이니 서로 이해하고 돈독하게 지내면 고된 작업도 힘들지 않게 느껴집니다. 후배들도 실습 가서 이런 기분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호: 학교라는 온실에서 글로 배우던 농업과 직접 현장에서 부딪히며 배우는 농업은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실습장도 자신이 상상한 모습과는 다를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무화과를 수확했던 그날처럼, 무엇이트 때가 있고 순서가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무화과를 수확해야 그 과일로 연구를 시작하고 집중적으로 과수 관리를 하는, 그런 당연한 순서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후배 여러분들도 실습장에서 실망을 경험하실 때면 작업의 시기, 순서, 각자의 업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이 실습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길 기대합니다.

효주: 꼭 자기가 가고 싶은 실습장을 먼저 잘 알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러 가기 전에 전공 교수님을 선택님들, 졸업생까지 가능한 많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세요. 1학년 때는 아직 현장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 현장은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라도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습할 때 매일 실습일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실습하면서 작업하는 모습이나 순서를 사진으로 찍어두면 일지 작성하기 편하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도 있는데 사진으로 기록된 일지를 되돌아보면 그날의 하루가 생생하게 기억 나고, 또 자기 모습을 되돌아보며 반성도 하게 돼서 더 의미 있는 실습으로 오래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찬우, 윤호, 조효주 총 세 명의 학우가 선택한 실습장은 각각 대규모 유리온실 농장, 아열대 과수 연구소, 지역 대규모 화원으로 같은 원예학 부여도 매우 다양했다. 실습장을 선택한 기준도, 현장에서 겪은 경험도 개인마다 달랐지만 세 명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말은 하나였다. 실습장은 매우 다양한 만큼, 1학년 때부터 미리 알아보고 교수님과 선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구하라는 것이었다. 또한 이들은 후배들이 실습 초반에는 낯설고 어렵더라도 후회 없이 열정을 다하길 바랐다. 장기현장실습장의 선택과 실습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있다. 이 기사가 그런 고민을 앞둔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글을 마친다.

실습부 김현수 기자

한농대, “안전이 먼저” 장기현장실습, 대폭 손질하고 네 번 점검·네 번 교육까지

국립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가 2학년 장기현장실습을 앞두고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했다.

■ 실습장 150개소 안전점검 착수

한농대는 3월 11일부터 전국 150여 개 실습 농·어장을 대상으로 장기현장실습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실습생들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장기현장실습교육을 이수하는 만큼, 출발 단계에서부터 실습장 안전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학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월 중 안전점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3월부터 바로 점검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 수립과 사전 준비를 끝냈다. 지난해까지는 4월에 업체를 선정해 5월부터 점검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점검 시기(5월→3월)를 앞당기고, 횟수도 연 3회에서 연 4회로 확대했다. 한농대는 3월부터 10월까지 연 4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1차 점검은 3월과 4월에 진행되며, 2차 점검은 5월과 6월, 3차 점검은 7월과 8월에 실시한다. 마지막 4차 점검은 9월과 10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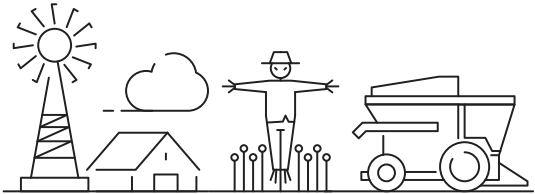
■ 실습기간동안 네 번의 안전교육으로 사고예방

실습장 점검뿐 아니라 실습생과 실습장에 대한 안전교육도 네 번으로 증가했다. 한농대는 올해부터 실습 시기와 농작업 특성을 고려해, 장기현장실습생에게 다음과 같은 정기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실습 전(2월): 장기현장실습 사전 안전교육
- 봄철(5월): 영농 초기 안전교육
- 여름철(7월): 온열질환·자연재해·화재·농기계 사고 예방교육
- 수확기(10월): 수확·운반·농기계 집중 사용 시기 안전교육



폭염 대비 장기현장실습 환경을 점검하기 위해 실습장에 방문한 이주명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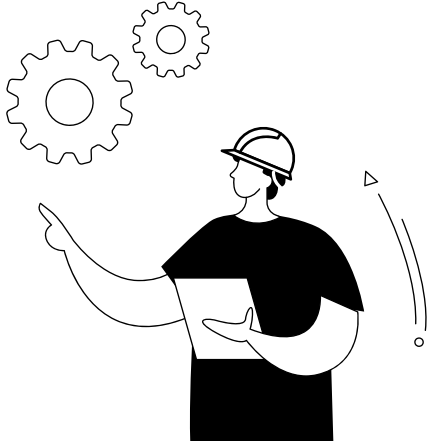
특히 7월 16일과 24일에는 원예학부·축산학부, 작물산림학부·농수산융합학부 실습생 전원을 이틀에 나눠 소집해 여름철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폭우 등 자연재해, 화재와 농기계 사고 예방뿐 아니라, 실습생 권의 보호에 관한 내용도 함께 다룬다.

한농대는 농작업 안전 전문 교수와 안전점검 전문업체를 함께 활용해, 실습생뿐 아니라 실습장을 대상으로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습생과 실습장, 지도교수가 모두 ‘안전의 언어’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 구조부터 손봤다

이번 변화는 지난해 실습생 사고 이후 수립한 장기현장실습 개선대책(3개 분야 9개 과제)의 본격 시행이라 할 수 있다. 개선대책은 크게 세 축으로 구성된다.

1. 안전 점검
 - 실습장 안전점검 및 협정 이행 점검
 - 장기현장실습센터 설치 및 운영(고충 상담·신고 창구 역할)
2. 안전 교육
 - 실습생 전공별 안전교육
 - 현장교수 대상 산업안전·보건교육
3. 실습 관리
 - 우수 실습장 선정 및 확산
 - 전공 교수별 실습장 전담 관리
 - 실습일지 관리 강화(주간 단위 점검)



특히 장기현장실습센터 운영과 전공교수 전담 실습장 지정은, 사고 발생 이후 뒤늦게 문제를 수습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습 전·중·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위험과 고충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학생들은 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노동·처우 문제를 실습센터를 통해 상담·신고할 수 있고, 전공 교수는 전담 실습장을 직접 관리하며 주간 단위로 실습일지를 점검한다.

■ 정에 농어업인 양성 핵심과정,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

실습은 한농대 교육과정의 중요한 축인 만큼,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 효과를 높이는 전제가 된다. 한농대는 올해 안전점검 전문업체를 통한 점검과 정기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실습센터 운영 및 전공교수의 전담 관리 등을 통해 실습생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실습장별 위험성 평가와 주간 단위 실습일지 점검을 통해 실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개선하려는 체계를 마련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각 실습 현장에서 충실히 운영된다면,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농어업 현장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명 총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이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습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농대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점검과 교육을 통해 더욱 안전한 장기현장실습 환경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편집부 정정아 기자

"우리가 먼저 가봤습니다" - 26학번 1학년의 솔직한 한농대 이야기 ~ 수업부터 과 분위기까지, 모집요강엔 없는 18개 전공 1학년의 생생한 인터뷰 ~

한농대에 입학하면 실제로 어떤 생활이 펼쳐질지, 입학을 앞두고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런 고민일 것이다. 하지만 모집 요강에는 학교와 학과 분위기, 대학 생활 이야기는 적혀있지 않다. 그래서 미래의 27학번 신입생과 한농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 올해 입학한 26학번 새내기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본 기사에 담아 보았다. 한농대 진학을 고민하고 있는 수험생이거나 한농대가 궁금한 사람들에게 이 기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식량작물 전공 1학년 김아현 학우>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에 기대하면서 입학했어요. 식량작물의 재배방법과 경영을 가르치는 대학교는 한농대가 유일하거든요. 학교에는 같은 목표를 가진 열정적인 친구들이 많아 저도 더 열심히 했었어요. 물론 입학 초에는 조용하고 서로 어색했지만, 친구들과 선배님들이 잘 챙겨주신 덕에 지금은 농번기로 바쁠 때면 서로 품앗이를 해줄 정도로 화기애애하고 즐겁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어려운 내용에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알려주셔서 전공수업도 재밌게 배웠어요. 아무래도 타 대학의 식량작물 전



공보다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한농대의 가장 큰 장점이고, 또 교육과정에서 실습의 비중이 높은 장점도 있어요. 저는 장기현장실습 제도를 기대하며 한농대에 지원한 것이라서 내년 2학년 실습 생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용작물 전공 1학년 박서린 학우>

“어릴 적부터 아버지께서 농사짓는 모습을 보며 꿈을 키웠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한농대를 선택했습니다. 특용작물은 작물 종류가 워낙 다양해서 다른 대학교에는 이러한 전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한농대 특용작물 전공에서는 많은 종류 특용작물을 배울 수 있고, 졸업하면 농창업까지 지원해 주는 학교라서 입학 당시에는 제 꿈에 다가가는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의는 실습동과 실험실에서도 자주 해서 특용작물의 재배 측면과 과학적 측면을 동시에 배우는 것 같아 재밌게 배웠어요. 또 실습이 많다 보니 스스로 깨닫는 점도 많고, 선배와 자연스럽게 어울리며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공은 약용작물이나 건강식품 원료가 되는 작물도 배워 건강에 관심이 많은 요즘 시대에 필요한 분야이고, 단가가 높아 작은 규모로도 다른 작목에 비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다면 정말 추천하고 싶은 전공입니다.”



<버섯 전공 1학년 오혜리 학우>

“제 부모님은 채소와 버섯을 재배하고 있어요. 채소는 여러 자동화 기술이 발달했지만, 버섯은 자동화가 어려워서 아직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작물이죠.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직업적으로 블루오션이라 생각해서 전문 버섯재배사가 되기 위해서 저는 한농대 버섯 전공에 입학했어요. 1학기 동안 버섯이 무엇인지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포자로 실험도 하고 관찰 보고서도 써보면서 교육과정이 체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처음에는 전문용어, 시험공부, 잦은 레포트 과제로 어렵기도 했지만 다 끝내고 보니 교수님의 의도가 이해된 것 같았어요. 지나 기억을 되짚을 때 제 레포트들이 나만의 지식 창고처럼 정말 유용하게 쓰여서 이제는 레포트를 정성적으로 쓰려고 노력하게 됐어요. 백지장이던 저를 지식으로 채워주신 교수님들에 감사하고 전공에 대한 자부심도 느낍니다. 최근에는 교수님께 고운성 표고버섯 품종인 ‘산조 101호’에 대해 배웠는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품종이라 직접 키워보고 싶어요. 아직 1학기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이만큼의 꿈이 생긴 걸 보면, 저에게 한농대란 ‘새로운 꿈이 시작된 장소’와도 같습니다.”



<산림 전공 1학년 지은우 학우>

“산림 전공은 산림자원과 숲을 관리하는 방법을 비롯해 식물과 나무, 산림, 환경 등 산림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배우는 전공입니다. 입학 직후에는 국·영·수만 배웠던 제가 산림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재미있게 이끌어 주셔서 더 흥미를 갖고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암기 위주의 내용이 많아 공부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았고 또 실제로 산에 올라가서 그동안 배운 것들을 활용해보는 수업도 있어서 정말 유익했습니다. 신입생때는 학교생활 하면서 산림 전공 선배들이 서툰 저를 많이 도와주셨고, 제 개인적인 진로 고민도 들어주시고 도움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멀리까지 생각했을 때 산림 전공은 졸업 후 진로 분야가 다양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조경 전공 1학년 황진하 학우>

“처음 입학할 당시에는 한국농수산대학교라는 학교 자체가 새롭게 느껴졌고, 대학생이 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실습동에 있는 하우스와 밭, 농기계들을 처음 봤을 때는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조경 수업도 실습 위주로 진행되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봄에는 첫 식재 실습으로 교내 정원에 조경수를 식재했는데, 산림 전공과 합동으로 진행했어요. 다 같이 협업해서 넓은 면적을 다양한 조경수와 정원석으로 아름답게 배치해 완성했던 그 작업은 힘들었지만 정말 즐거우면서도 많이 배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론 공부도 체계적으로 배우고, 실습은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 주셔서 직접 해보며 배우는 재미가 있어요. 한농대를 다니면서 다른 학교에서는 쉽게 경험하지 못할 경험을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채소 전공 1학년 유한욱 학우>

“채소 전공에 처음 왔을 때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막상 배우다 보니 시설 건축, 작물 재배, 농약 사용, 수확 후 판매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깊게 배웠어요. 한 학기 동안 이렇게 알차게 배웠다면 졸업할 즈음에는 “내가 무언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많아 어느 수업 하나 거를 게 없다는 선배님의 조언이 딱 맞는 것 같았어요. 교수님들은 학생들과 편하게 소통하면서도 꼭 알아야 하는 부분은 하나하나 짚어주셔서 강의가 늘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1학년 때 실습이 조금 적은 점은 아쉽지만, 2학년 때는 현장에서 8개월 동안 장기현장실습을 하게 될 텐데 기대되면서도 살짝 긴장되기도 해요. 채소전공은 누구 하나 혼자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선배와 동기, 교수님 모두 먼저 다가와 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원예환경시스템 전공 1학년 이준수 학우>

“원예환경시스템 전공은 지능형 농장으로도 불리는 ‘스마트팜’ 그 안에서의 작물 재배를 배우는 미래지향적인 전공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온과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노지 농업만으로는 안정적인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팜은 수업은 어려운 내용도 교수님들이 쉽게 설명해 주셔서 처음 배우는 학생들도 부담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실습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며 배우는 재미가 크고, 스마트농업을 보다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전공만의 장점이 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목표를 가진 학생들이 모여 있어 금방 친해지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학교생활을 이어간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농업과 스마트팜에 관심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추천하고 싶은 전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수전공 1학년 이교현 학우>

“사실 저는 과수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상태로 입학해서 걱정했는데요 입학해 보니 저와 비슷한 친구들도 있었고 각자 다양한 목표로 입학한 동기들이 신기하기도 하고安心이 됐습니다. 전공 강의는 교수님께서 기초 이론부터 세세히 가르쳐 주셔서 크게 어렵지 않았고, 실습수업은 교수님들께서 열정적으로 배운 게 정말 많았습니다. 혹시 전공을 고민하신다면 과수 전공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도 입학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교수님과 선배들이 편하게 소통하는 모습에서 친밀감이 느껴지고, 3학년 선배들이 1학년을 잘 챙겨줘서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사이좋은 분위기에요. 학교생활에서 급식과 기숙사 모두 만족스럽습니다. 주변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 본인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해서 저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배우고 즐기는 학교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화훼 전공 1학년 김승주 학우>

“화훼 전공의 실습수업은 학교에 있는 첨단 스마트팜 온실(PTC온실)에서 하는데, 처음 들어갔을 때는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와 시설에 감탄했었어요. 수업에서 이론과 실습의 비중은 비슷하고 교수님께서 각자 심은 꽃을 본인이 전담해서 끝까지 키우도록 지도해 주셔서, 내 작물을 내가 돌본다는 애착과 책임감이 생겨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수업이 재밌게 느껴졌습니다. 또 화훼 전공이라 해서 꽃

만 배우는 것은 아닙니다. 분화, 선인장, 시설원예, 기초화학 등 다양한 과목도 함께 배우고, 꽃에 대해 잘 모르더라도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꽃을 가까이하며 배우다 보니 기분이 절로 좋아지고, PTC에서 다른 전공 친구들이 키우는 작물도 함께 볼 수 있어 배우는 재미가 더 커졌어요. 하루하루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하루의 낙이 되었습니다”



<한우 전공 1학년 김정우 학우>

“실례는 입학식을 마치고 저는 1학년 1학기 동안 전공 수업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체내 호르몬의 역할과, 섭취한 사료가 4개의 위장에서 소화되는 방법 등등, 한우의 생리작용을 매우 상세하게 배울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1학년 때는 이론 수업을 주로 하는데 조금 어렵더라도 놓치지 않고 배워서 2학년, 3학년에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우는 초기 비용, 투입 비용, 수익성 모두 매우 높아서 초반에는 어렵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의외로 진로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우 전공을 추천해 드립니다. 한농대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꿈이 비슷한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쉬는 시간이나 기숙사에서 친구들과 농창업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학교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낙농 전공 1학년 하지성 학우>

“처음 학교에 와서 선배님과 교수님께서는 저희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잘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낙농 수업을 하실 때도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십니다. 수업에서 젖소와 한우의 사양관리, 질병, 사료 배합에 따른 유량 등 실무적인 사육 방법을 과학적으로 배웠는데, 우리 집 축사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어서 많이 도움 됐습니다. 특히 송아지를 잘 키우고 싶거나 축산을 제대로 배우고 싶거나 관련 분야에서 이미 종사하고 계신다면 한농대 낙농전공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농대는 학생들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정말 많은 지식을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거든요. 또 교내 행사도 많아서 재미있게 참여하고 있고, 한 학기를 보내면서 학교생활도 전체적으로 만족하며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양돈 전공 1학년 정재용 학우>

“처음 학교에 왔을 때는 처음 보는 사람들뿐이라 많이 어색했고, 낯도 가렸습니다. 그래도 동기들이 먼저 다가와 준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양돈과 수업은 교수님께서 중간중간 양돈 현장의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분위기가 좋고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집중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한농대 주변에는 농촌진흥청 건물들이 많아 견학을 자주 가고, 20분 정도 걸어가야 변화가가 있어서 교내는 조용하고 편안해서 좋습니다. 또 기숙사와 강의실 건물도 가까워서 편리하고, 학교 가운데에는 호수로 이어지는 산책길이 있어서 한농대는 정말 공부하기에 최상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과는 나이가 다양한 편이라 형들에게 인생 이야기나 농장 경험, 여러 꿀팁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쉬는 시간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배우는 것도 많고 학교생활도 더 재미있게 느껴집니다.”



<가금 전공 1학년 김근업 학우>

“예전의 저는 가금이라면 육계만 알고 있었는데 학교에 와서 처음으로 종계, 산란계, 토종닭, 오리 등 여러 가지 가금류와 각각의 품종 및 세부 특징까지 배운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수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닭의 신체 구조, 생리작용까지 자세하게 강의해 주시고, 해부 실습도 있는 덕에 더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공 교수님과 학우들의 축산업 현장 경험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점이 정말 유익했습니다. 한농대에서 공부하며 자연스럽게 시아가 넓어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금 전공이라고 해서 한 분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금류를 접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분야로 진로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계 쪽은 계절화가 많이 이루어진 분야여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과 인연을 이어가며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한농대 가금 전공만의 큰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말산업반려동물 전공 1학년 신유빈 학우>

“말산업반려동물 전공은 말 사육환경과 말의 신체, 기승교육 등등 말을 돌보는 방법과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교내에 말 사육 및 승마 실습장이 있어서 실제 말과 실습도 자주 합니다. 마사 분야에서 경력이 많으신 교수님과 마사회 수의사 출신 교수님께 전공 수업을 받아서 이론적인 부분 밖에도 실제 현장 경험도 알려주셔서 얻어가는 것이 정말 많아요. 일정 수준의 기승 실력을 갖추면 교내 승마장에서 코치님 지도를 받으며 직접 승마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전공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안전성의 이유로 장재교육은 포

함하고 있지 않지만, 말산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과는 극히 드물기에 말과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한농대를 적극 추천하고 싶습니다.”

<농수산푸드테크 전공 1학년 유예진 학우>

“저는 농수산푸드테크 전공을 다니며 식품이 만들어지고 가공되는 과정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까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생활과 연결되는 내용이 많아서 배우는 재미가 있고, 푸드테크 전공의 실습동에서 조리 실습도 자주 해서 직접 경험하며 이해하니 공부도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애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한 사람이라면 더 재미있게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실습도 많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전공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수산업에서 수익을 높이거나 6차산업을 하려면 농수산물의 가공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전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분위기는 동글동글하다는 표현이 잘 어울릴 만큼 편안하고 좋아서 우리 전공에 입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산비즈니스 전공 1학년 원준서 학우>

“농수산비즈니스 전공은 농업 분야의 경제, 유통, 창업을 중심으로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반적인 경영 과정을 배우는 전공입니다. 작물 재배보다는 그 후의 가공, 유통, 브랜드화해서 소비자에게 파는 과정 등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6차 산업 관련 현장 견학과 농기계 자격증 교육 등 다양한 실습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 역량을 기를 수 있고, 특히 농산물 유통 구조를 직접 분석하거나 간단한 창업 아이템을 기획해보는 수업도 있어서 배운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공 교수님들께서 강의를 열정적으로 진행해 주시며 학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점을 우리 전공의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선후배 간 교류가 활발하고 서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위기 속에서 전공 공부와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함께 쌓아갈 수 있습니다.”



<산업곤충 전공 1학년 나예성 학우>

“산업곤충 전공은 양봉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곤충을 활용한 농업을 배우며, 실무와 생물학적 이론을 함께 익히는 전공입니다. 직접 벌을 사육하고 꿀을 채밀하는 실습은 물론 식용·사료용 곤충, 양잠까지 다루며 미래식량 자원으로서의 가능성까지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이 전공만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가 견학과 졸업생 창업 사례를 통해 현장 경험과 창업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고, 교수님께서 단순한 농업과 재배 기술을 넘어 차별화된 농업과 경쟁력을 갖춘 농가를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함께 배우며 농업 경험과 노하우를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과 분위기가 더욱 편안하게 느껴졌고,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에게 배우는 점도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수산양식 전공 1학년 박홍석 학우>

“저는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경험과 전통에 기반한 재래적 방식으로 수산업을 해왔지만, 저는 더 과학적인 근거로 가업을 발전시키고 싶어서 한농대를 선택했습니다. 수산실습동은 첨단 기술과 외국의 시설들로 지어져서 신기했고,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기술 사례도 배울 수 있어 유익합니다. 또 전공 안에서도 생산 방법에 따라 채취와 양식으로, 품목에 따라 어류·어패류·해조류로 세분화되며 각 분야 전문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무엇보다 3년간 학비, 식비, 기숙사비가 모두 무료인 전액 장학금 제도 덕분에, 큰 부담 없이 입학했다가 수업 퀄리티와 기숙사, 학식 모두에 놀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스토리텔링을 담은 나만의 브랜드를 개발해 바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솔직담백하게 들려준 1학년 학우들의 이야기, 저마다 다른 목표로 한농대에 입학했지만, 인터뷰에서 공통된 흐름이 있었다. 입학 초반에는 낯선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로 어색함이 있었지만, 한 학기를 보내고 나니 대부분 빠르게 적응했다는 것이다. 교수님이 차근차근 알려주시고, 선배들이 잘 챙겨주는 분위기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학교생활에 적응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배우는 내용이 생각보다 다양하고 깊다는 점, 실습이 재미있다는 점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한농대는 각 전공별 실습교육동을 갖추고 있다. 다만 전공 교육과정에서 따라 실습동 활용 시기가 정해져 있어, 아직 실습동에 가보지 못한 1학년 학우라면 2학년 현장실습에서 훨씬 심도있게 경험한 다음 3학년 과정에서 한농대 실습동을 활용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한농대에서의 시간은 농업을 몸으로 배우고, 사람을 만나고, 자신의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아직 진로를 고민하고 있다면, 26학번이 먼저 경험한 그 자리에 와 보는 것은 어떨까. 다음은 당선 차례다.

편집부 박인희 기자

<< 예비 한농인 주목! 2027학년도 입시 및 경쟁률 총정리 >>

농수산업이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 농수산업을 이끌어갈 현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국립대학교이다. 수업료·기숙사비·식비 등 교육 비용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며, 2학년 전원이 국내의 농어가에서 현장실습 교육을 받는 한농대가 최근 2027학년도 모집요강을 게시했다.

2027학년도 한농대 모집요강의 변경 사항을 살펴보고, 최근 3개년(2024~2026학년도)의 모집 변경 사항 및 입시 결과를 비교하여 설명한다.

■ 27학년도 전형 및 전공 모집인원 세부 설명

총 모집 정원	수시 1 차				수시 2 차
	일반전형	농수산전형	사회통합전형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570	231	124	18	59	138

2027학년도는 2026학년도와 동일하게 학부가 아닌 전공별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4개 학부·18개 전공에서 총 570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학부와 전공별 모집 인원을 살펴보면 작물·산림학부는 총 150명을 모집하며 식량작물전공 40명, 특용작물전공 30명, 버섯전공 30명, 산림전공 25명, 조경전공 25명을 모집한다. 원예학부도 총 150명을 모집하며 채소전공 40명, 원예환경시스템전공

40명, 과수전공 40명, 화훼전공 30명을 모집한다. 축산학부는 총 135명을 모집하며 한우전공 40명, 낙농전공 20명, 양돈전공 25명, 가금전공 25명, 말산업반려동물전공 25명을 모집한다. 마지막으로 농수산융합학부는 총 135명을 모집하며 농수산푸드테크전공 35명, 농수산비즈니스전공 35명, 산업곤충전공 25명, 수산양식전공 40명을 모집한다.

네 가지 전형의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전형명	대상·자격 및 특징
일반전형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농수산계 고교 졸업(예정)자는 지원 불가
농수산전형	한농대에서 인정하는 전공 72개 농업계 및 9개 수산계 고교 졸업(예정)자
사회통합전형	아동복지시설 출신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자녀 중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역균형전형	경상권, 충청권, 강원, 제주 지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일반전형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농수산계 고교 졸업(예정)자 포함, 영농기반 및 자격증 가산점 반영

뒷면 계속

■ 전형 자격 및 절차별 평가 방법

▪ 수시 1차

1단계 평가에서는 서류 성적을 바탕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300% 내외를 선발하여 면접 대상자를 가리고, 2단계 평가에서는 1단계 성적 일부와 면접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 이내로 선발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수시 1차의 경우, 1단계에서 교과성적 70점과 출석성적 30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을 50점(교과성적 40점, 출석성적 10점)으로 환산하여 반영하고, 여기에 면접평가 점수 50점을 더해 총 100점 만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며, 지원자의 영농기반이 아닌 영농 의지와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 다만 농수산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수시 1차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수시 2차

일반전형만 존재하는 수시 2차 역시 1단계에서는 수시 1차와 동일하게 교과성적 70점과 출석성적 30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2단계에서도 1단계 성적 환산점 50점과 면접평가 점수 50점을 합산하는 구조는 같으나, 수시 1차와 달리 영농·영어기반 유무에 따라 5점, 자격증 종류에 따라 최대 2점의 가산점이 반영되는 차이가 있다. 학생부의 교과성적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한국사 포함), 과학 교과 내 전 과목을 반영한다. 학년별 반영 비율은 1학년 30%, 2학년 30%, 3학년 1학기 40%의 비율로 가중치를 두어 산출한다. 출석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발생한 미인정 결석 및 미인정 지각·조퇴·결석 횟수를 기준으로 차등 평가하며,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는 3회를 결석 1회로 간주하여 계산한다. 면접 평가는 지원자 1인당 10분 내외로 진행되는 심층 면접 방식으로 주요 평가항목은 영농·영어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면접 태도이다. 면접 평가에서 면접 점수가 배점 50점 중 30점 미만을 받을 경우, 총점과 관계없이 불합격된다.

■ 제출 서류

원서접수는 진학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원서 접수 후 학교생활기록부 등 공통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교육부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공 동의자의 경우에는 대학이 시스템을 통해 서류를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온라인 제공 비동의자, 2024년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 등 온라인 조사가 불가능한 지원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검정고시 합격·성적증명서 등의 공통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별전형 지원자 및 가산점 신청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데, 사회통합전형 지원자는 지원 자격 증명 서류를, 영농·영어기반 가산점과 자격증 가산점을 신청하는 지원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등기우편 또는 대학 교학과 방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제출 시에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하다.

■ 입시 일정

▪ 수시 1차 (일반/농수산/사회통합/지역균형전형)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26년 9월 7일 (월) 9시 ~ 9월 30일 (수) 18시
서류평가 합격자 발표 및 면접평가 안내: 2026년 10월 28일 (수)
면접평가: 2026년 11월 4일 (수)
최종합격자 발표: 2026년 11월 18일 (수)
합격자 등록: 2026년 11월 18일 (수) 9시 ~ 2026년 11월 20일 (금) 18시
총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6년 11월 23일 (월) ~ 2027년 2월 12일 (금)

▪ 수시 2차 (일반전형)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026년 10월 12일 (월) 9시 ~ 10월 23일 (금) 18시
서류평가 합격자 발표 및 면접평가 안내: 2026년 11월 26일 (목)
면접평가: 2026년 12월 4일 (금)
최종합격자 발표: 2026년 12월 16일 (수)
합격자 등록: 2026년 12월 16일 (수) 9시 ~ 2026년 12월 18일 (금) 18시
총원합격자 발표 및 등록: 2026년 12월 21일 (월) ~ 2027년 2월 12일 (금)



■ 재도전을 위한 4개년 모집요강 비교표

구분	24학년도	25학년도	26학년도	27학년도
전형 종류	도시인재전형 농수산인재전형 사회통합전형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농수산전형 사회통합전형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농수산전형 사회통합전형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농수산전형 사회통합전형 지역균형전형
전형별 모집 범위	전공 모집			
	농수산인재전형 도시인재전형	일반전형(1차) 농수산전형	일반전형 농수산전형 사회통합전형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농수산전형 사회통합전형 지역균형전형
	학부 모집			
	사회통합전형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2차) 사회전형 지역전형	일반전형(2차)	× (전공으로만 모집)
면접	하루 진행 (구분×)	이틀간 진행 (1차, 2차 구분)	이틀간 진행 (1차, 2차 구분)	하루 진행 (1차, 2차 구분)

베트남에서 꿈을 안고 한농대에 오다, 채소전공 응엔지땀 학우

한국농수산대학교에는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들이 함께 배우며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농수산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지금까지 교환학생으로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 출신 채소전공 3학년 응엔지땀 학생 역시 그중 한 명이다. 한국의 발전된 농업기술과 실습 중심 교육에 매력을 느껴 한국 유학을 선택한 그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응엔지땀 학우를 만나 한국 유학을 선택한 계기와 학교생활,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실습중인 응엔지땀 학우

Q.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Xin chào(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Nguyễn Chí Tâm(응엔지땀)이며, 현재 한국농수산대학교 채소전공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Q. 한국 유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처음에는 아름다운 한국 문화에 매력을 느꼈고, 이후 한국에 대해 깊이 알아보다가 한국이 농업 분야에서 매우 발전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한국농수산대학교의 입학 모집 안내를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 채소전공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와 가장 인상 깊었던 전공 강의의 소개해 주세요.

A. 사실 유학생은 처음부터 전공을 선택할 수 없고, 여러 전공 강의를 수강해본 후 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중 채소를 배우면서 점점 흥미를 느끼게 되어 채소전공을 선택했고, 채소 재배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딸기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좋아하는 강의는 채소영양 관리학입니다. 식물이 어떤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지 이해하고 적절하게 공급하면 건강하게 재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Q. 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학교에서 운영하는 장기 현장실습과 다양한 실습 과목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농업 현장을 경험하며 전공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특히 2학년 장기 현장실습 제도는 베트남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어려운 교육 방식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현장과 연결하며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 베트남과 한국의 농업 교육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A. 제가 느끼기에, 한국의 농업 교육은 스마트농업과 첨단 기술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농장이나 민간 기업에서 실습할 기회도 많습니다. 반면 베트남은 종자 연구와 전통적인 재배 기술, 학교 내 실습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또한 한국 농업은 기계화와 첨단 기술이 빠르게 보급되어 있고, 베트남도 이러한 사례를 배우며 점차 농업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유학생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저는 원래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에서 공부하며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한 일들이 저에게

■ 학비 걱정 없는 농수산업 경영인의 길, 도전이 필요한 때

한농대는 스마트팜 빅데이터 분석, 드론 노지 농업, 수산양식 AI 기술 등 최첨단 융복합 교육을 전액 국비 지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학비와 숙식비 부담 없이 자신의 영농·영어 비전에만 몰두할 수 있다는 점은 한농대의 큰 강점이다.

다가오는 9월, 수시 1차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2027학년도 입시가 시작된다. 교과 성적과 출석을 관리하고 면접 평가에서 확고한 영농 및 영어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다면 청년 농업인의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해나갈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

사회부 김진아 기자

특별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반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언어였습니다. 유학을 오게 된 것도 우연한 계기였기 때문에 한국어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Q. 앞으로 베트남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A. 앞으로 농업에 대한 지식과 경제적인 기반이 충분히 갖춰진다면 딸기 농장과 카페를 함께 운영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맛있는 딸기를 직접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딸기가 자라는 과정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한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다면 먼저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언어를 미리 준비하면 학교생활과 일상생활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한국은 외국인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많은 도움을 주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기사를 마치며...]
응엔지땀 학우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지향하는 실습 중심 교육과 장기 현장실습 제도가 유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농수산대학교의 유학생 제도는 입학 단계에서부터 전공별로 학생을 선발해, 입학과 동시에 자신의 전공 분야를 체계적으로 파고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유학생은 한국의 농업 교육과 실습을 직접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자신의 꿈을 구체화해 나가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낮은 환경 속에서도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응엔지땀 학우. 그가 한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언젠가 자신만의 딸기 농장과 카페를 운영하는 꿈을 이루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앞으로도 더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농수산대학교의 문을 두드리, 한국의 선진 농업 교육을 통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란다.



MT에 간 응엔지땀 학우

위크루 김은미 기자

화합과 열정의 장, 2026년 한농대 체육대회 개최

지난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한국농수산대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일대에서 2026년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학과별 대항전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대학 생활을 처음 경험하는 1학년에게는 앞으로의 학교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졸업을 앞둔 3학년에게는 학창 시절의 추억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외부 현장실습으로 인해 평소 교내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2학년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여 학년 간 교류의 폭을 넓히고 선후배 간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주명 총장의 개회 축사

■ 개성을 뽐낸 학과 입장식

이번 체육대회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개회식의 일환으로 진행된 학과 입장식이었다. 한국농수산대학교의 18개 전공이 모두 참여한 이번 입장식은 각 학과의 특색을 담은 입장곡과 행진으로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모았다.

일부 학과는 단체 티셔츠와 소품을 활용해 단결력을 보여주었고, 과를 상징하는 인형 탈을 착용한 채 입장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또 실습에 활용되는 농기계를 직접 운전하며 행진하거나, 보호장비를 착용하고 통나무를 운반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학과도 있었다. 수산양식 관련 장비를 착용한 채 등장한 학과 역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특히 마지막 순서로 등장한 말산업 반려동물 전공은 기마시연을 선보이며 큰 호응을 얻었다. 총 6마리의 말이 기수와 함께 운동장을 행진하는 모습은 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기에 충분했으며, 기수와 말이 보여준 안정적인 호흡과 숙련된 기승 기술은 관람객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 열띤 응원 속 펼쳐진 체육 경기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다양한 실내의 종목이 운영되었다. 야외에서는 축구, 농구, 계주, 씨름, 줄다리기, 여왕 피구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실내에서는 배드민턴과 E-스포츠(롤드체스) 경기가 열렸다. 운동장에서는 축구와 줄다리기, 계주가 진행되었고, 농구장에서는 농구와 족구 경기가 동시에 치러졌다. 여왕 피구는 테니스장에서 진행되었으며 물도체스는 학생회관에서 운영되었다. 체육관에서 열린 배드민턴 경기에서는 2층 관중석을 가득 채운 응원단의 함성이 경기장 전체를 울리며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특히 이번 체육대회에서 가장 열띤 종목이었던 씨름 경기는 풋살장 뒤편에 마련된 씨름장에서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경기장을 동글게 둘러싸고 학과 대표 선수들을 응원했으며, 승부가 결정될 때마다 환호와 탄성이 이어졌다. 학과를 대표해 출전한 선수와 이를 응원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공동체 의식과 단합의 의미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체육대회 본선에 앞서 각 학과는 약 일주일 동안 종목별 예선전과 연습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준비 과정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친목을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며, 체육대회가 단순한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씨름 경기에 참여중인 학생들의 모습

■ 학생회가 준비한 다양한 이벤트

첫째 날인 14일에는 학생회에서 경기 진행과 동시에 풋살장에서 미니 게임 부스를 운영하였다. 물풍선 던지기, 풍선다트 맞추기, 코끼리 코 공차기, 카드 뒤집기 등 다양한 미니 게임이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에게는 간식이 제공되었다. 이는 경기 관람 중인 학생들에게 또 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체육대회의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학과별 뒤풀이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은 식사를 함께하며 학과 구성원 간 친목을 다졌고, 선후배와 동기 간 대화를 나누며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무대에서는 팔씨름 대회와 스트롱맨 챌린지, 노래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 새롭게 도입된 공기놀이 대회

이번 체육대회에는 전년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벤트가 마련됐다. 바로 우리나라의 대표 전통놀이인 공기놀이를 스포츠 형식으로 겨루는 공기놀이 대회이다.

공기놀이 대회는 체육대회 첫날인 14일 오후, 체육관에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됐다. 실제 공기 대회의 규칙을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신청해서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학과별로 나뉘어 진행되는 타 종목들과 달리 개인전 형식으로 진행돼 있으며, 경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서로 아낌없는 응원을 건네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로는 진지한 표정으로, 때로는 손을 뗄 정도의 긴장감 속에서도 끝까지 경기에 집중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체육대회가 지닌 도전과 열정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이번 공기놀이 대회 행사를 주관한 ‘대한공기게임협회’는 우리나라의 전통놀이인 공기놀이를 현대 스포츠로 발전시키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생활 스포츠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협회는 “이번 한국농수산대학교와의 교류를 통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에게 공기 게임의 스포츠적 가치와 매력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농업과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 세대가 우리 전통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공기놀이를 스포츠로 바라본다는 시선은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공기놀이는 장소의 제약 없이 어디서나 즐길 수 있으며, 세대와 성별, 국적을 넘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높은 접근성을 갖춘 놀이이다. 대한공기게임협회는 이러한 공기놀이의 특징점을 앞장세워 협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이번 한농대 체육대회 행사를 통해 대학과 청년층에게도 가능성을 보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공기게임 프로

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별 공기게임 동아리와 대학 리그 운영, 전국 대학생 공기게임 챔피언십 개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대회 운영과 심판, 콘텐츠 제작 등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끝으로 대한공기게임협회는 “앞으로도 한국농수산대학교와 협력해 공기게임이 학생들이 기다리는 대표 콘텐츠이자 차별화된 스포츠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화합과 추억을 남긴 체육대회

2026년도 한국농수산대학교 체육대회의 명예로운 우승컵은 과수학과가 차지하였다. 그 뒤로 한우·낙농 학과가 2위를, 농수산비즈니스 학과가 3위를 기록했다.

이번 체육대회는 학과 간 선의의 경쟁과 화합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에게는 학창 시절의 소중한 추억을 남기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행사를 준비한 학생회와 관계자들의 노력,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의 협조가 더해져 원활한 행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체육대회를 비롯해 향후 진행될 ‘한농제’와 같은 많은 행사가 이처럼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줄다리기 경기에 참여중인 학생들의 모습

문화부 이예강 기자

나와 한농대를 글로 표현하다 – 한농대 에세이 공모전

농업은 흔히 농사짓는 것만 그려지지만, 그 이면에는 오늘날 새로운 도전과 선택 앞에 선 청년들이 있다.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는 이러한 청년농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한농대를 더욱 알리기 위해 ‘2026년 한농대 에세이 공모전’이 개최되었다.

이 공모전이 다른 글쓰기 대회와 구별되는 지점은 바로 ‘에세이’라는 형식에 있다. 에세이란 프랑스어 ‘essai(시도)’에서 유래한 말로, 특정 주제에 대해 저자의 개인적 견해와 생각, 경험을 자유로운 산문 형식으로 서술한 글이다. 일정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인생, 자연, 일상에서 얻은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쓸 수 있으며, 작가의 개성과 인간성이 잘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서론·본론·결론의 기본 구조를 따르지만, 학술 논문처럼 엄격하지 않고 저자의 주관적 관점과 해석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편이다. 에세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도 필자의 사유와 성찰을 담으며, 독자와 소통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 형식이다. 한농대가 청년농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릇으로 다름 아닌 에세이를 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형화된 보고서나 논문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느낀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에세이 공모전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4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원고를 접수했다. 한농인이 농어촌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경험과 감정을 진솔하게 담기길 바라며, 이를 통해 한농대생의 목소리를 대외적으로 널리 전달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동시에 한농대만의 특징점을 알리기 위한 사회적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시상 규모 역시 대상 1인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비롯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까지 반기별로 총 10명에게 수여된다. 공모문에서 세 가지의 에세이 주제가 주어지며, 참가자는 이 중 한 가지의 주제를 골라서 글을 짓는 방식이다. 주어진 에세이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한농대 출신 청년농으로서 농어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야기이고, 두 번째는 취업과 창업농 준비 과정에서 마주한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며, 세 번째는 재학생과 졸업생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농대만의 특징점이다. 참가자들은 1,0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정리해 제출하면, 심사는 대학 학보사 지도교수와 기획조정과 주무팀장 등 내부 위원 2명과 홍보 용역사를 통해 추천된 외부 위원 1명이 함께 맡았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 경험성과 진정성, 표현력과 문장력, 구성과 완성도, 공감과 사회적 가치라는 다섯 가지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공모전이 특별한 이유는 교내대회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모전의 수상작이 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의 신문에 6월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연재되기 때문이다. 한농대생의 목소리가 대외적으로 널리 전달되는 것이다. 이는 농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동시에 한농대가 가진 특징점을 널리 알려준다.

이번 한농대 학보에서 에세이 공모전 대상수상작을 가장 먼저 소개해본다. 제목 ‘한농대라는 날개로 내가 정한 하늘을 날다’란 작품은 원예환경시스템 1학년 이현우 학우의 글이다. 타 대학교 원예학과였던 이현우 학우가 자퇴를 결심하고, 다시 한농대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진로에 대한 고민과 자신의 이야기들을 담담하면서도 힘 있게 풀어낸다. 아래는 그의 수상작 전문이다.

『망설임을 확신으로 바꾼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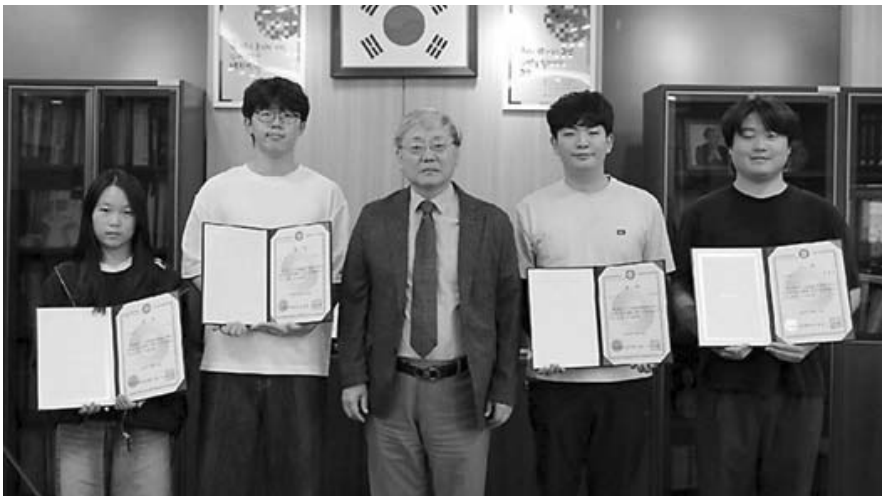
전북대학교 원예학과를 다니다 군 전역 후 자퇴를 결심했다. 어느 한순간의 결정이라기보다, 교양과 폭넓은 학문을 두루 배우는 전북대 커리큘럼이 “농사를 짓겠다”는 내 방향과 어긋난다는 생각이 점차 굳어졌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대학교를 고민할 때 전문대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지만, 농업에 특화된 학교라는 조건만큼은 어디에도 없다고 판단해 도전했다. 와서 보니 그 망설임이 무색할 만큼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한농대의 특·장점은 결국 한 가지로 모인다. 농업으로 살아갈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학교라는 점이다. 굴착기 실기처럼 농업 현장에 바로 쓰이는 자격증 프로그램을 학교 차원에서 운영해 주고, 과 MT나 수업을 통해 다양한 농가 사례를 직접 들을 기회가 끊이지 않는다. 더 든든한 것은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 대부분이 졸업 후 곧장 농업 현장으로 향할,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동기들과 나누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그대로 현장감 있는 자산이 된다.

대상 수상자 이현우 학생의 글은 단순한 수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농업 분야에

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특히 “농사를 확실히 짓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한국농수산대학교만큼 완벽한 조건을 갖춘 학교는 없다”는 이현우의 문장은, 자신의 원하는 것을 시도하기 위해 입학한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에게는 화려한 수사 없이도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이는 심사 기준 가운데 경험성과 진정성, 공감과 사회적 가치가 왜 중요한 평가 항목인지를 그대로 증명한다. 이 공모전의 의미는 ‘확신’이다. 수상작이 세계일보 등 언론에 순차적으로 기고되면서, 한농대 학생들의 이야기는 교내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간다. 이는 농업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나 무관심을 줄이고, 농업을 진로의 한 선택지로 고민하는 또 다른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참고 사례가 된다. 한 학생의 개인적 경험에 우리 학교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결국 한농대 에세이 공모전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통로를 제시해 주는 한국농수산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현우 학생의 수상작이 보여주듯, 한 편의 글은 그 어떤 홍보물보다 농업의 가치와 한농대의 가치를 보여준다.



‘2026 한농대 에세이 공모전’ 시상식 사진

문화부 지은우 기자

한농대 산학협력단&평생교육원 특별 교육현장 소개

탄탄한 이론부터 현장 견학까지, 변화하는 환경 속 실력을 다지는 '성장농 역량향상 프로그램' 버섯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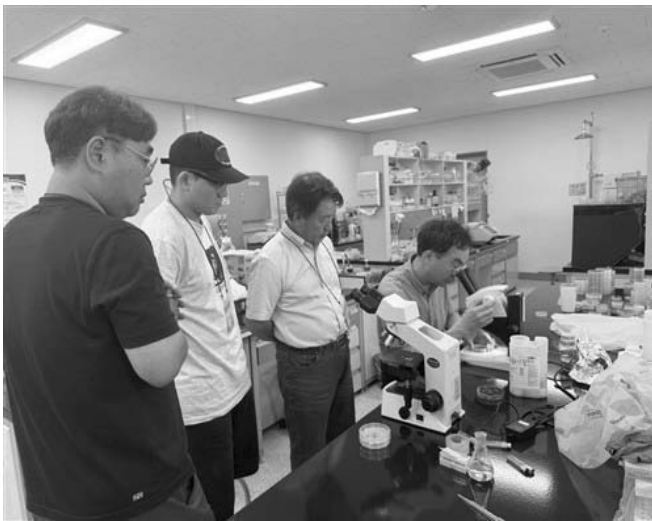
‘성장농 역량향상 프로그램’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본 프로그램은 한국농수산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김진진), 평생교육원(원장 박진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550명이 수료하였다. 작물산림학부 버섯 전공 서건식 교수와 박명수 교수가 주임교수로 교육 전체를 진행하고, 이외에도 한국농수산대학교 교수진이 경영, 마케팅, ICT 스마트 설비 및 시스템과 수확후관리 산업 안전교육 등에 참여하고 있다.

교육생 모집은 매년 2~4월에 “농정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교육 기간은 4월~8월까지이며 총 10주간 60시간의 교육이 이루어진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표고, 양송이, 느타리류를 중심으로 ① 품종 및 종균관리 ② 배양 및 생육 환경관리 ③ 병해충관리 ④ 안전생산관리 ⑤ 수확후관리 및 경영관리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2026년에는 표고 기초반이 4월부터 6월까지 교육이 진행되었고, 표고 심화반과 양송이 심화반 교육은 현재 진행되고 있다. 각 반의 정원은 10명 내외로 컨설팅형 현장 실무교육으로 운영하고 있다.

버섯 산업은 일부 품목의 과잉생산, 중국산 버섯 배지 및 버섯 수입증가, ICT 및 AI기반 스마트팜 도입 등 피할 수 없

는 난제들을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장농 역량향상 프로그램”은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정확히 진단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아 나가는 배움의 장이 되고 있다. 양송이 심화반, 표고 기초 및 심화반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농가에서 매일 마주하는 재배 현장의 고민을 해결하는 컨설팅 형 실무교육을 바탕으로, 버섯 배지 제조부터 생육 환경 관리, 스마트 버섯재배 모니터링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꼭 필요한 핵심 기술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다.



양송이·표고 심화반 이론 및 실습 교육)

특히 교육의 생생함을 더하는 것은 이론을 넘어선 실습과 현장 견학 및 실습이다. 병해충 진단을 위한 현미경 실습과 품목별 육종 실무를 직접 체득하여 품종 육성 역량을 함양하고, 현장 견학에서는 선도 농가의 재배 및 경영 우수성을 배우는 것과 동시에,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버섯 농업의 현실적인 한계와 문제점들을 낱가롭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

본 교육 과정 중에서 진행되는 현장 견학 프로그램은 품목별 선도농장을 방문하여 재배기술, 시설설비, 유통 및 경영 현황 등을 선도 농가의 농장주와 함께 견학, 토론을 진행하며, 교육생들 모두가 실무 경험이 최소 5년 이상인 경우가 많기에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교육생과 현장 농장 주 모두 만족도가 높은 시간이다.



양송이 심화반 현장견학

교육과정 중 매일 진행되는 집중 토론 시간은 본 교육의 하이라이트이다. 교육생들은 각자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의 구체적인 재배 환경과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꺼내놓고, 교수진과 심도 있는 상담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피드백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혼자 고민하던 난제들의 해법을 구체적으로 찾아가며 문제 해결 능력을 탄탄히 다져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안전안심 생산 관리, 재배사 시설설비 및 빅데이터 활용, 수확 후 관리 등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알찬 교육 과정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바쁜 생업 속에서도 매시간 적극적으로 임하며 높은 열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멈추지 않는 배움과 실천으로 내일을 도약시키는 이들의 발걸음은, 우리 버섯 산업의 탄탄한 내일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되고 있다.

버섯전공 4학년 이예찬 학우

전쟁·기후·물가, 2026년 국내외 상반기 농업경제와 하반기 전망

“농업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거시경제를 읽는 능력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 역량이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이란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 곡물과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 상황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의 밀가루 가격과 농자재(비료, 농약 등)값과 국내 농산물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기사에서는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로 현재의 농업경제 상황과 향후 전망을 한농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FAO(유엔식량농업기구) - 「FFPI(세계 식량 가격 지수)」
2. OECD(경제협력개발기구)·FAO 공동 발간 - 「Agricultural Outlook 2025-2034(농업 전망)」
3. KREI(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전망 2026」

가장 신뢰도 높은 위 세 가지 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으며, 이 보고서들이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의 흐름과 숫자들이 한농인의 미래 영농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본 기사에서 짚어보았다.

■ 1. FAO가 말하는 2026년 상반기의 세계 식량 가격 지수

우선 FAO에서 매월 발표하는 FFPI(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곡물(밀, 옥수수, 쌀 등), 식물성 기름(팜유, 대두유 등), 유제품(버터, 치즈, 분유 등),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등), 설탕 이렇게 5가지 식품군의 국제가격을 추적한다.

2026년 4월 FFPI는 전월 대비 1.6% 상승했으며, 그중에서도 곡물 가격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밀 가격은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인 러시아의 수출 여건에 크게 좌우된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물류적 부담이 커졌고, 흑해 항로 역시 기뢰, 보험료 상승, 운임 불안정 등으로 인해 수출 비용이 커진 상태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러시아산 밀의 공급과 가격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러시아가 세계 최대 밀 수출국은 맞지만, 세계 밀 가격은 러시아의 요인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요 수출국의 작황, 국제 운임, 환율, 수급 상황 등 여러 변수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OECD·FAO의 「농업 전망 2025-2034」 역시 흑해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밀·옥수수 가격이 향후 수년간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기 어렵다고 전망한다. 즉, 현재의 곡물 가격은 일시적 급등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세계 식량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 2. 중동 분쟁과 에너지 가격이 비록값으로 직결된다.

중동 분쟁의 확대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자극하고, 이는 곧바로 농업 생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KREI의 「농업전망 2026」 역시 비료를 포함한 농업 생산비 부담이 지속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는 시설원예뿐 아니라 노지 채소, 화훼, 버섯 등 다양한 작목의 수익성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추가로 IEA(국제에너지기구)의 「원유 시장 보고서(Oil Market Report) 2026」에서 이스라엘-이란 긴장 고조되는 달에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평균 약 5~10달러씩 급등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 근거를 뒷받침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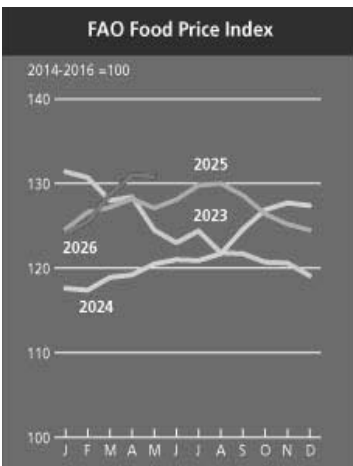


사진1. FAO 세계 식량 가격 지수 2024~2026 추이 그래프

에너지 가격 상승은 질소비료 가격을 통해 농수산업비용에 직접 반영된다. 요소·암모니아와 같은 질소비료는 천연가스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국제 가스·원유 가격이 오르면 비료 원가도 함께 상승한다.

국내에서 많이 의존하는 요소 비료는 대외 수급 불안에 특히 취약하다. 중국은 최근에도 요소 수출을 자율 제한하거나 통관을 늦추는 방식으로 수출을 조절해 왔고, 과거에도 비슷한 조치가 반복되면서 국내 수급 불안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2025년 하반기 긴급 성명을 통해 비료 수급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 3. KREI 「농업전망 2026」에서 예측한 6국내 농산물 물가와 수급 전망

KREI는 매년 1월 ‘농업전망’ 보고서를 통해 당해 연도의 국내 농업 여건을 전망한다. 이 보고서는 국내의 과거 통계, 정책 변화, 품목별 수급과 작황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여기에 기후변화, 환율, 국제 곡물 시장, 유가 등 대외 변수를 함께 반영해 농업 부문의 수급과 소득 변화를 예측한다.

「농업전망 2026」은 2026년 국내 농업 경제의 주요 변수로 ① 수입 농산물 가격 상승 압력 ② 농업 생산비 증가 ③ 기상 이변에 따른 작황 불안정을 꼽는다. 특히 2026년에는 농업 생산액이 63조 3,757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고, 농업 생산액 증가와 일부 농자재 지원이 소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농가소득이 5,333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은 감소세가 이어져, 농업의 구조적 고령화와 규모 축소 문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 곡물 가격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밀·옥수수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원료를 사용하는 사료와 가공식품 부문에서는 비용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축산 농가의 사료비 부담과도 직결되며, 농업 생산비와 식품 물가에 단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다만 물가와 비용의 움직임은 품목별·시기별 차이가 크므로, 연간 평균 수치만으로 단정하기보다 작목과 업종별로 구분해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 4. FTA 확대와 수입 농산물 경쟁 압력

OECD·FAO 보고서는 각국의 무역 확대와 시장 개방이 장기적으로 농산물 가격과 교역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의 경우 한-EU, 한-미 FTA에 이어 신규 협정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에 따른 수입 농산물 물량 확대가 국내 농산물 가격 형성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맥락에서 농촌경제연구원은 품질 차별화·브랜드화·직거래 유통 역량을 갖춘 농가가 FTA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가격이 아닌 신뢰·품질로 소비자와 연결되는 구조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 5. 세 보고서에서 공통으로 지목한 2026 하반기 리스크

결론적으로 위 세 가지 보고서를 종합하자면 2026년 하반기 농업·식량 시장의 핵심 리스크는 흑해 지정학, 중동 에너지, 환율 변동성이고, 이들이 서로 겹치면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흑해 지역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항만·해상 운송 불안이 이어질 경우 밀·옥수수의 공급 차질과 해상 보험료 상승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국제 곡물 가격과 운임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중동에서는 이란을 둘러싼 긴장과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불안이 국제유가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유가 상승은 농업용 면세

유, 시설원에 난방비, 비료·농약 원료, 물류비에 연쇄적으로 반영되므로 국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또한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수입 농산물과 농자재의 원화 환산 비용이 상승해 사료·비료·농약·곡물 원료의 단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 산업과 축산 부문은 국제 곡물가, 운임, 환율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비용 충격에 더 민감하다.

「표 1-5」 물가 변화 추이」

구분	2023	2024	2025				
			1/4	2/4	3/4	4/4	연간
소비자	3.6	2.3	2.1	2.1	2.0	2.4	2.1
농축수산물	3.1	5.9	1.2	1.1	2.9	4.2	2.4
생산자 ²⁾	1.6	1.7	1.5	0.5	0.8	1.6	1.1

주 1) 2020=100 기준임.
2) 2025년 4/4분기 생산자물가지수는 2025년 11월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변화 추이를 분석한 추정치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사진2. KREI '농업전망 2026, 농산물 물가 전망' 도표

앞서 살펴본 'FAO의 세계 식량 가격 지수', 'OECD의 세계 농업전망', 'KREI의 국내 농업전망'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과 에너지 위기는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농업 경제의 구조를 바꾸는 중장기 변수가 되었으며 특히 KREI는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하려면 농가 차원에서 비료·사료의 공동구매, 투입재 절감, 에너지 효율 개선, 재고 관리, 수입선 다변화, 계약재배 확대 같은 비용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는 비축 물량 운영, 수급 모니터링 강화, 단기 가격 급등 시 긴급 수급 안정 조치 방안을

한농대에서 농업을 배우는 우리는 이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비웃값이 오르면 생산 원가가 오르고, 수입 곡물 가격이 오르면 사료비가 오르면, FTA가 확대되면 우리가 키운 작물이 더 치열한 가격 경쟁에 노출된다. 거시 지표를 읽는 것은 경제학자의 일이 아니라 농업경영인의 기본 소양이다.

보고서를 읽는 습관, 수치를 해석하는 능력, 그리고 그 흐름 위에 자신의 영농 전략을 올려놓는 판단력이야말로 거센 바람에도 버틸 수 있는 농업경영인의 조건이다.

사회부 두기동 기자

국내 최초 농림·산림 관측 전용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4호 발사 성공



농진청 제공 - 농림위성 예상 이미지

2026년 7월 7일 오후 4시 12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9 발사체가 하늘로 솟아 올랐다. 발사 약 2시간 30분 후 위성이 발사체에서 정상 분리됐고, 23분 뒤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의 첫 교신이 완료됐다. 국내 최초 농림·산림 관측 전용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림위성)가 고도 888km 궤도에 안착하는 순간이었다.

농림위성은 우주항공청·농촌진흥청·산림청이 공동으로 2019년부터 개발을 시작해 총 1,160억 원이 투입된 위성이다. 본체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탑재체 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이 맡았다. 무게 514kg의 이 위성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광역관측카메라가 탑재됐다. 관측폭 120km, 해상도 5m로 지상의 5m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으며, 농작물과 산림 생육 판별을 위한 청·녹·적·적색경계·근적외선 파장대로 총 5개의 분광 밴드를 갖췄다.

인공위성은 용도에 따라 크게 통신위성, 기상위성, 항법위성, 지구관측위성, 과학위성, 군사위성 등으로 나뉜다. 이 중 농림위성은 지구관측위성에 속한다. 다만 일반적인 지구관측위성이 국토 촬영, 환경 모니터링, 재해 감시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것과 달리, 농림위성은 처음부터 농업·산림 관측만을 목적으로 설계된 전용 위성이다.

하나의 위성에서 농업과 산림 두 분야를 함께 관측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두 분야는 모두 식생 관측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같은 탑재체와 분광 밴드로 동시에 관측이 가능하고, 한반도는 국토의 약 63%가 산림이고 나머지가 농경지·도시로 구성돼 있어 산불이 나면 농경지 피해로 이어지고 가뭄이 들면 산림도 함께 영향을 받는 등 두 분야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 하나의 위성으로 두 분야를 함께 관측하는 것이 비용과 재해 대응 측면에서 모두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기존 국내 위성과 농림위성의 성능을 비교하면 특히 관측폭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기존 아리랑 위성의 관측폭은 12km이지만, 농림위성은 이보다 10배 넓은 120km를 한 번에 촬영할 수 있어 한반도 전역을 두세 차례 궤도 통과만으로 찍을 수 있다. 그 결과 한반도 촬영 소요 일수가 약 10일에서 3일로 크게 줄어들었다.

농림위성 발사 이전까지 국내 농업 관측에 주로 활용돼 온 위성은 미국의 랜드샷(Landsat)과 유럽의 센티넬(Sentinel)이다. 랜드샷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미국지질조사국(USGS)이 1972년부터 공동으로 운영하는 지구관측위성으로, 현재 랜드샷 8호·9호가 운용 중이다. 센티넬은 유럽우주국

(ESA)이 운영하는 위성으로, 센티넬-2 기준 해상도 10m, 재방문 주기 10일이다. 두 위성 모두 데이터를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해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농업 관측에 활용돼 왔다. 그러나 랜드샷의 해상도는 30m·재방문 주기 16일, 센티넬은 10m·10일로, 농림위성의 해상도 5m·주기 3일과 비교하면 정밀도와 빈도 모두 차이가 크다. 특히 한국 농경지는 필지 하나가 크게 잡아야 3,000평 안팎의 소필지 구조인데, 기존 위성으로는 논 한 필지를 겨우 몇 개의 픽셀로밖에 표현하지 못했다.

따라서 기존의 위성 관측 연구는 촬영 우선순위와 데이터 접근권을 한국 정부가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위성 영상으로 부족한 부분은 드론·항공사진·표본조사 등으로 보완해왔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농림위성 발사로 한국은 농업·산림 전용 위성을 독자 운용하는 나라가 되었으며, 이런 전용 위성을 직접 보유한 나라는 많지 않다. 해외 위성 데이터를 구매하거나 무료 공개 데이터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역을 직접 촬영하고 데이터 접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데이터 송수신 계획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의 운영계획에 따라 농림위성에서 송신한 데이터는 먼저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에서 수신 후 국내로 넘어온다. 이후 농업 관련 데이터는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위성센터가, 산림 관련 데이터는 국립산림과학원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가 각각 수신·처리·배포를 담당하며, 하루 최대 300GB의 영상 데이터를 처리해 기본 14종, 장기적으로는 68종의 산출물을 생산할 계획이다.

위성 데이터 활용 계획은 크게 세 방향이다.

첫째, 농지 이용 실태조사, 공익직불제 이행 점검, 농산물 수급 예측 등 정책 분야에 활용한다. 현재 드론·항공사진·표

본조사로 이뤄지던 농지 현황 파악이 위성 영상과 AI 분석으로 전환되면 현장조사에 투입되는 인력과 비용을 40~6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둘째, 홍수·가뭄·산불·산사태 등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를 광역 단위로 신속하게 파악하고 복구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셋째, 위성 데이터를 민간에 단계적으로 개방해 농업 AI 서비스 개발 등을 지원한다. 민·기업·공공기관 누구나 농림위성정보 운영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농진청은 올 하반기엔 우주청이 위성을 운영하며 성능을 검증하는 만큼 내년초부터 대기보정을 거친 위성영상과 식생지수 자료를 민간에 본격 배포한다고 밝혔다. 농림위성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농업 현장의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앞으로 현장에 나갈 한 농인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산림청 제공 - 농림위성의 주요 사양

편집부 정정야 기자

[칼럼] 1차 산업의 투박함을 벗다, 농업의 미래를 바꾸는 ‘브랜딩’과 ‘고급화’

○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감성 마케팅과 디자인으로 소비자의 지갑을 연다.

전통적인 농업 생태계에서 농산물의 가치는 오직 생산량과 당도, 크기 같은 가시적인 품질 지표에 의해서만 확립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 소득 수준의 향상과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미식 문화의 확산은 농산물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현대의 소비자들은 단순히 배를 채우거나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 시장을 찾지 않는다. 그들은

농산물이 가진 고유한 시각적 이미지, 생산 배경의 독창성, 그리고 제품이 전달하는 감성적인 스토리에 만족감을 느끼며 기꺼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책 연구기관의 최신 통계는 이러한 변화를 실제 수치로도 뒷받침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발표한 「2024년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식료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구입한다’는 응답 비율은 9.7%로 전년(4.1%) 대비 두 배 이

상 뛰었다. 화면 속 이미지 한 장이 구매를 좌우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뜻이다. 같은 조사에서는 가정식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 간편식(HMR) 소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소비자가 식재료 자체의 물성보다 ‘어떻게 포장되고 어떤 이야기로 제시되는가’에 더 크게 반응하는 흐름이 통계로 드러난 셈이다.

이런 흐름은 국내에 국한되지 않는다. 코로나 19 이후 확산된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

‘헬스디깅(Health-digging)’ 같은 건강 관련 신조어들은 소비자가 건강을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소비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서울대 소비트렌드분석센터가 발간한 「트렌드 코리아 2026」이 제시한 ‘근본이즘’—콘텐츠·상품 홍수 속에서 진짜와 원조, 오리지널리티를 중시하는 소비 심리—역시 같은 맥락에 있다. 이들 트렌드를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명확하다. 소비자는 이제 가격과 기능만이 아니라, 건강·진정성·감성적 경험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함께 구매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교하게 다듬어진 브랜드 로고와 세련된 패키징 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은 일반 원물 형태 제품보다 소비자가 느끼는 품질 신뢰도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업계와 연구기관들의 공통된 관찰이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격언이 오늘날 농산물 시장에서 단순한 수사가 아닌, 매출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마케팅 원칙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되면 계속

농산물의 소비 트렌드가 단순한 원물 소비에서 가치 소비로 전환됨에 따라, 제품의 시각적 이미지와 브랜딩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으로 대두되었다. 아무리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라 할지라도 투박한 마대 자루나 무지 상자에 담겨 시장에 나올 경우,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밀려드는 저가 수입산 농산물의 거센 공세 속에서 제값을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농산물에 새겨진 이미지를 입히고 독창적인 정체성을 부여하는 브랜딩 작업이 단순히 겉포장을 예쁘게 꾸미는 장식적 행위를 넘어, 우리 농업의 생존력을 결정짓는 강력한 고부가가치 무기로 재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평범한 디자인 보다는 스토리텔링과 프리미엄 패키징... 고부가가치 창출 방법**

많은 이들이 농산물 브랜딩을 단순히 로고를 세련되게 다듬거나 화려한 색상의 상자를 제작하는 등의 일차원적인 디자인 개선 영역으로만 한정 지어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농업 현장에서 브랜딩이 실제로 강력한 차별성을 만들어내고 가격 방어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소비자 경험에 정교하게 연결되어야만 한다. 진정한 브랜딩이란 밭에서 수확한 농산물에 고유한 서사와 영혼을 불어넣는 작업과 같다. 이 농산물이 어떤 농부의 손에서,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지를 보여주는 감성적 스토리텔링은 복제 불가능한 그 브랜드만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창출한다. 소비자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동시에 농부의 진정성과 스토리를 함께 소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근본이즘’—원조와 진정성을 향한 회귀 욕망—이 농산물 시장에서 구현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결합되는 프리미엄 패키징 전략은 스토리텔링의 시각적 완성도를 높여주는 핵심 도구다. 현대의 친환경 트렌드에 부합하는 생분해성 소재의 활용이나, 고가 라인을 타깃으로 한 고급스러운 비주얼 디자인은 농산물의 격을 순식간에 공산품 이상의 명품 반열로 끌어올린다. 특히 백화점 식품관이나 프리미엄 온라인 마켓을 이용하는 현대 소비자들은 제품을 처음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패키지의 촉감과 시각적 조화에 따라 품질을 직관적으로 신뢰하게 된다. 이러한 고급화 전략은 기존의 산지 도매 유통 방식이 가진 고질적인 가격 변동 리스크를 차단하고, 농가가 스스로 가격 결정권을 쥐고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대안을 제시한다. 디자인과 가치를 입히는 마케팅적 발상의 전환이 1차 산업의 투박한 원물을 고부가가치 문화 상품으로 탈바꿈시키는 메커니즘인 셈이다.

○ **‘못난이 사과’의 반전과 명품 과일 상자... 마케팅이 만든 농업의 시장 경쟁력**

브랜딩과 마케팅 전략이 실제로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했는지는 국내 농업 현장의 실제 우수 성공 사례들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우박을 맞아 외관에 미세한 흠집이 생기는 바람에 폐기 처분되거나 헐값에 넘겨질 위기에 처했던 농가의 ‘못난이 사과’ 반전 마케팅을 들 수 있다. 해당 농가들은 상품 가치가 떨어진 사과를 숨겨거나 텀핑 판매하는 대신, ‘하늘이 내린 흔적’ 혹은 ‘보조개 사과’라는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전면에 내세웠다. 여기에 투박함을 지워내기 위한 독창적인 캐릭터 패키징 디자인을 적용하여 시장에 선보인 결과, 놀랍게도 일반 정품

사과보다 오히려 더 높은 가격에 완판되는 성과를 거뒀다. 단점을 고유한 정체성으로 승화시킨 브랜딩의 승리였다. 이는 고물가 국면에서 소비자들 사이 무조건 저렴한 것을 찾기보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 가격’을 받아들이는 최근의 소비 태도—이른바 ‘가격 해석형 소비’—와도 맞닿아 있다.



우박에 찌힌 못난이 사과 → 보조개 사과

최근 고가 프리미엄 과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샤인머스켓 등의 백화점식 프리미엄 패키징 사례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밭에서 갓 수확한 과일을 무작위로 포장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여, 과일 한 송이 한 송이를 고급 완충재로 정성스럽게 감싸고 명품 보석 상자를 연상케 하는 독자적인 하드케이스 상자에 담아 선물용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포지셔닝에 성공한 농업법인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맛의 우수함을 강조하는 막연한 홍보에서 벗어나, 소비자가 제품을 개봉하고 섭취하는 전 과정에서 일관된 고급스러움과 품질을 경험할 수 있도록 브랜딩을 일원화했다. 그 결과 일반 유통 제품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이 책정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지갑을 여는 탄탄한 충성 고객층을 확보했다. 마케팅이 단순한 홍보 기법을 넘어 농산물의 가치를

재정의하고 농가의 강력한 경쟁력을 창출하는 실증적 무기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샤인머스켓 고급 선물포장

[핵심요약]

현대 농업의 경쟁력은 ‘생산’이 아닌 ‘가치 부여’에서 나온다. 온라인 구매 비중 급증, 간편식 확대, ‘근본이즘’적 진정성 소비, 그리고 ‘가격 해석형’ 소비 태도가 겹쳐지며 세련된 패키징과 감성 스토리텔링의 결합은 저가 수입산 농산물의 공세를 막아내고 독자적인 시장 권력을 확보하는 고부가가치 창출의 핵심 열쇠가 되고 있다.

○ **단순 생산의 프레임을 깨다... 미래 농업인들의 마케팅적 안목과 발상의 전환 촉구**

농산물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이를 브랜딩하는 작업은 단순한 유행이나 거대 유통 자본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수입 농산물의 무차별적인 공세와 농가 인구 감소라는 가혹한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하는 필연적인 길이다.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농촌경제 동향 2026년 봄’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농림어업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9%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농가판매가격지수는 3.2% 상승했다. 생산에 참여하는 인력은 줄어드는데 판매 단가는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의 농업

경쟁력이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보다 ‘얼마나 잘 팔리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통째로도 뒷받침한다.

이제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대학의 학우들은 밭을 일구고 정성껏 작물을 키워내는 ‘1차 생산자’의 역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자신이 땅 흘려 생산한 농산물이 어떤 소비자의 식탁에 오를지, 그들에게 어떤 시각적 가치와 스토리로 다가갈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마케팅 디렉터’이자 ‘브랜드 크리에이터’로서의 안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발상의 전환은 아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된다. 전공 수업을 통해 배우는 첨단 재배 기술에 디자인적 감각과 소비자 심리 분석을 더하는 융합적 사고가 필요하다. 농산물이라는 원물에 ‘브랜드’라는 옷을 입히고 ‘스토리’라는 생명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우리의 농업은 1차 산업의 투박함을 완벽히 벗어던지고 미래 산업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다. 본교 학우들이 생산 현장에서부터 마케팅적 마인드를 장착하고 대한민국 농업의 패러다임을 혁신해 나갈 주역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워크부 박재현 기자

한반도 농수산림,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다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로 읽는 농수산업의 현재와 미래

유엔 산하 기후변화 국제기구인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모두가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할 기회의 창이 빠르게 닫히고 있다”라고 말한다. 나는 이 문장을 책상이 아니라 온실과 밭에서 실감한다. 우리는 매년 역대급 더위를 겪으며 지구온난화를 피부로 느끼면서도, 정작 이상기상에 대한 경각심과 대응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구 온도가 1℃ 오른다는 말은 잘 와닿지 않는다. 하루에도 일교차가 심한데 고작 1℃가 대수냐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온도가 누적된다는 데 있다. 화훼와 과수를 공부하며 가장 절감한 부분이다.

[휴면,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추위]

사과나 배 같은 과수는 겨울이 되면 ‘휴면’에 들어간다. 곰이 겨울잠을 자듯, 나무도 추운 계절 동안 생장을 멈추고 잠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잠에서 깨어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일정량 이상의 저온을 채워야 한다. 그냥 겨울을 한 번 났다고 깨는 게 아니라, 추위가 차곡차곡 쌓여 일정 기준(저온요구도)을 넘겨야 비로소 휴면이 풀리고(휴면타파) 봄에 꽃을 피운다. 여기서 기후변화가 문제를 일으킨다. 평균기온, 특히 겨울철 밤 기온과 최저기온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예전 같으면 영하 10도, 11도, 12도로 내려가며 저온이 충분히 쌓였을 겨울이, 이제는 영하 5도, 6도에 그치거나 영상으로 바뀐다. 채워야 할 추위를 다 못 채운 나무는 잠에서 제대로 깨어나지 못하고, 끝내 꽃을 고르게 피우지 못한다. 따뜻해졌는데 오히려 꽃이 부실해진다니,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도 같은 진단을 내린다. 보고서는 겨울철 온도 상승으로 저온요구도가 충족되지 않아 사과·배의 재배 적지가 줄고, 특히 SSP5 같은 고탄소 시나리오에서는 2030년대 이후 적합지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게다가 겨울철 이상난동으로 개화가 앞당겨지면, 뒤늦게 찾아온 봄 늦서리에 꽃눈이 얼어붙는 피해까지 겹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무더운 밤이 작물의 양분을 갉아먹는다]

야간의 기온상승은 또 다른 방식으로 작물을 괴롭힌다. 식물은 낮에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들고, 밤에는 호흡으로 그 양분을 쓴다. 기온이 오르면 광합성량도 어느 지점까지는 늘지만, 너무 높아지면(대략 40℃를 넘으면) 광합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이 변형되며 기능이 망가진다. 게다가 온도가 높으면 호흡량도 함께 치솟는다. 낮에 애써 만들어 둔 양분을, 더운 밤에 호흡으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결국 실제로 남은 양분(순광합량)은 줄고, 식물은 웃자라며, 열매든 꽃이든 채소든 버든 품질이 떨어진다. 이것은 막대한 우려가 아니다. 보고서가 인용한 거봉 포도 실험에 따르면, 야간온도가 24℃ 이상으로 지속될 경우 호흡 증가로 인해 과실의 착색이 나빠졌다. 포도의 상품성을 좌우하는 색이 더운 밤 때문에 망가지는 것이다. 고온 스트레스는 어느 작물에게나 가혹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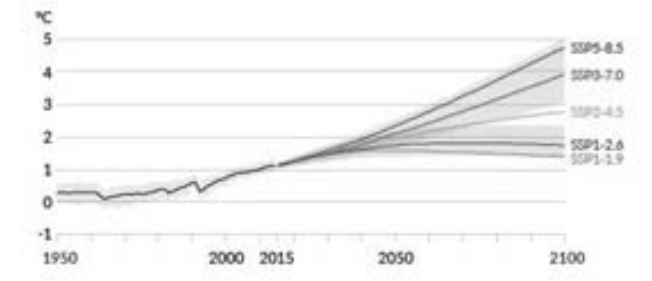
[열을 식혀주던 바다도 한계에 도달했다]

지금까지 바다는 기후변화의 완충제 역할을 해왔다. 인간이 내뿜은 이산화탄소와 열의 상당 부분을 바다가 흡수하며 지구 온도 상승을 늦췌온 것이다. 그러나 그 바다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열을 흡수할수록 바닷물 자체가 뜨거워지고, 더워진 바다는 더 이상 예전처럼 열을 식혀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변 해양 표층수온은 전 지구 평균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 그 청구서는 이미 수산업에 날아들었다. 2011년부터 2024년까지 14년간 고수온으로 인한 수산업 누적 피해액은 3,472억 원. 뜨거워진 바닷물에 양식장의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고, 어민들은 속절없이 피해를 떠안는다.

더 큰 변화는 어종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수온 상승과 함께 명태·꽁치·도루묵 같은 한류성 어종의 어획량은 꾸준히 줄고 있다. 한국인의 생선이라 불리던 명태는 1980년대 연간 16만 톤 이상 잡히던 것이 2008년에는 사실상 0에 가까워졌다. 그 자리를 고등어·멸치 같은 난류성 어종이 채우고 있지만, 그것이 반기는 일만은 아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먹어온 생선들이 하나씩 밥상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본 보고서의 고탄소 시나리오(SSP5-8.5)에서는 2100년까지 주요 양식 밀집 해역의 수온이 4~5℃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과수의 재배 적지가 줄어들든, 바다의 생태계 지도도 빠르게 다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해양수산 분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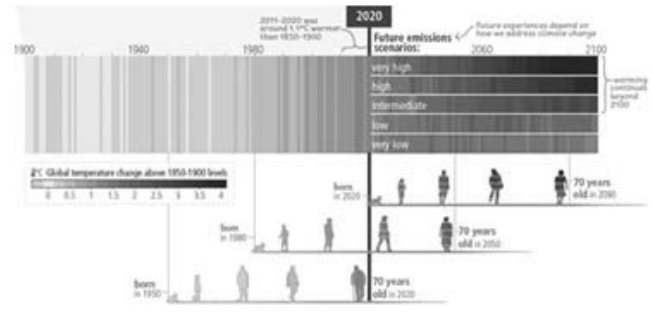
IPCC, 2021 - 시나리오에 따른 1850~1900년대 대비 미래 지구 평균 기온의 변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극단적인 사례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다. 2019~2020년 호주의 ‘검은 여름(Black Summer)’ 산불이 대표적이다. 약 1,900만~2,400만 헥타르가 불탔고, 코알라를 비롯해 추정 30억 마리의 동물이 죽거나 서식지를 잃었다. 켄거루섬에서만 수만 마리의 코알라가 희생됐다. 흔히 이런 가뭄을 엘니뇨 탓으로 알지만, 사실 그해의 직접적 방아쇠는 인도양 쌍극자(IOD)라는 또 다른 해양 현상의 강한 양(+)의 국면이었다(당시 태평양은 엘니뇨도 라니냐도 아닌 중립에 가까웠다). 다만 이런 극단적 가뭄과 폭염의 빈도를 끌어올린 배경에는 인간이 일으킨 기후변화가 있다는 데에 과학자들의 폭넓은 동의가 있다.

지구 반대편, 즉 남아메리카에서는 같은 기후 진동이 반대로 작용해 폭우와 홍수가 잦아지기도 한다. 한쪽이 타들어 갈 때 다른 쪽은 잠기는 셈이다.

우리나라에도 검은 여름이 있었다. 바로 작년 봄, 의성 산불이다. 2025년 3월 의성에서 시작된 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번지며 약 11만 6,000헥타르를 태웠고,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최대 규모의 단일 산불이었다. 본래대로라면 겨우내 내린 눈이 산의 흙에 스며 충분한 수분이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동해안의 고수온으로 고기압이 발달해 비와 눈이 줄고, 3월부터 고온 건조한 환경이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 하나가 견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됐다. 4월에 태어난 폭설이 내려도 “이제 산불 걱정은 덜었다”며 안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는 어쩔지 서글프다. 지구는 계속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 말이다.



IPCC, 2023 - 우리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다음세대의 기후변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물론 농업이 기후변화의 주범은 아니다. 우리나라 농업·축산 부문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국가 전체의 3% 안팎이다. 소가 되새김질하며 내뿜는 메탄, 물을 댄 논에서 올라오는 메탄, 거름과 비료에서 나오는 아산화질소가 그 대부분이다. 3%는 적어 보이지만, 그건 농업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산업·발전·수송 부문의 배출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일 뿐이다. 플라스틱과 자동차처럼 삶을 편리하게 만든 발명품들은, 동시에 지구를 데우는 청구서이기도 했다.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넘어서면 인간 사회와 생태계의 많은 부문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고, 그 뒤에 배출을 줄이더라도 이미 벌어진 일은 되돌릴 수 없다고 한다. 기후 시나리오 중 최악인 SSP5-8.5는, 우리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을 때 맞게 될 미래다. 그것은 우리가 맞이해야 할 미래가 아니라, 기를 쓰고 피해야 할 미래다. 올해 우리나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배경농도는 432.7ppm으로 또 한 번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탄·아산화질소와 함께, 지구를 데우는 온실가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쌓여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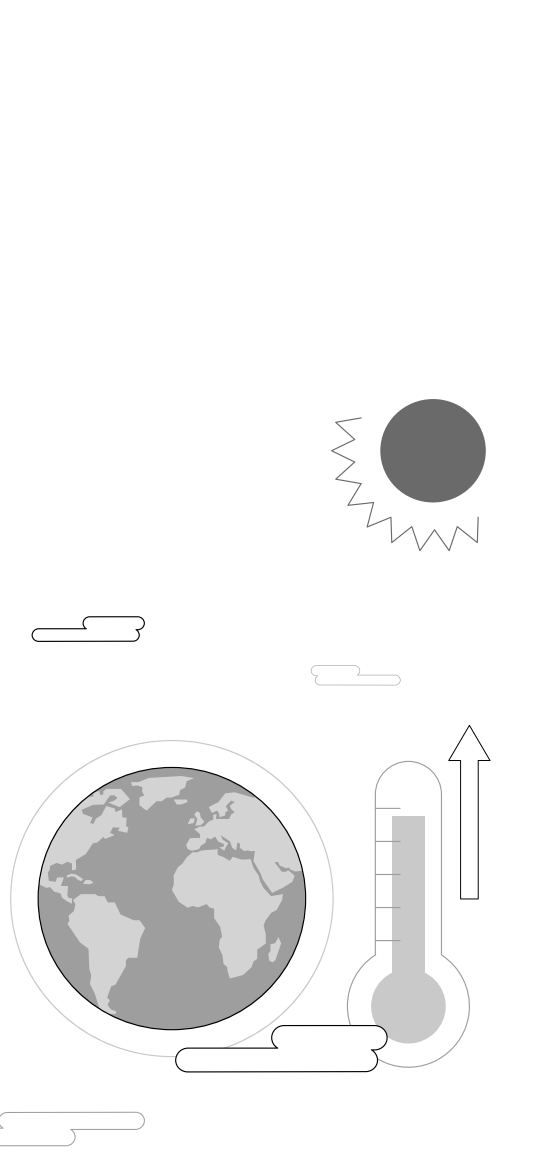
거창한 결론을 말하려는 건 아니다. 텀블러와 에코백을 쓰고, 다화용기를 챙기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는 일. 너무 뻔

한 이야기인가. 그러나 뻔하다는 이유로 외면하기엔 지구가 보내는 신호가 너무 또렷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ESG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에 ‘화훼로 투표’하는 것도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는 선택이다.

저온이 쌓여야 꽃이 피듯 우리의 작은 실천도 쌓여야 미래가 된다. 기회의 창이 닫히기 전에 모두가 살기 좋은 지속 가능한 내일을 우리 손으로 붙잡아야 한다. 농업을 공부하는 나에게,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후위기가 한반도의 농업·해양수산·산림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다면 환경부·기상청이 5년마다 공동 발간하는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영향 및 적응)」를 직접 읽어보길 권한다.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영향 및 적응)」pdf 다운로드 링크▼
<https://library.mcee.go.kr/#/search/detail/5926868?offset=2>

사회부 안세희 기자



종자특허전쟁, 씨앗이 국가경쟁력이 되는 시대



종자 한 톨이 곧 돈이다. 씨앗에 특허가 걸리는 시대가 됐고, 이를 심고 거두는 순간부터 ‘로열티’라는 이름의 청구서가 뒤 따른다. 청양고추, 팽이버섯, 양송이버섯 등 우리가 흔히 먹는 농산물 상당수가 외국 기업에서 개발한 품종으로, 재배할 때 독 일·일본·이탈리아로 로열티가 나간다. 종자는 이제 식량안보와 농업 주권을 가늠하는 전략 자산이 됐다. 농업의 미래를 준비 하는 한농대 학생들에게도 이 문제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니다.

- '농자재'에서 '지식재산'으로 바뀐 종자의 역사

먼저 ‘로열티’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기업이나 기관이 그 품종을 재배·판매하는 이들에게 받는 사용료다. 육종가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품종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그 대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취지다. 문제는 국내 육성 품종 이 부족한 작물일수록 농민이 재배 첫 단계부터 이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씨앗은 농가가 스스로 거두고 이듬해 다시 뿌리는 순환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미국을 시작으로 식물에 대한 특허가 인정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다국적 종자기업들은 유전자 변형(GMO) 기술과 우수 형질을 특허로 등록하고, 이 를 사용하는 모든 재배자에게 로열티를 청구하기 시작했다. 미국 농무부(USDA) 조사에 따르면 1990년 상위 4개 기업이 41% 에 그쳤던 옥수수 특허 점유율은 현재 95%에 달할 만큼 소수 기업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됐다. 바이엘의 몬산토 인수(2018년), 다우·듀폰의 합병 후 코르테바 분리(2019년), 켈미치아나의 신젠타 인수(2017년) 등 잇따른 인수합병은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함께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러한 특허 중심 구조가 낳은 대표적 갈등이 캐나다 농부 퍼시 슈마이어(Percy Schmeiser) 사건이다. 1997년 그의 캐놀라 (유채) 밭에 인근 농지에서 바람에 날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몬산토의 제초제 내성 유전자가 섞여 들어갔다. 이듬해 슈마이어 가 이 씨앗을 다시 심자 몬산토는 특허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2004년 캐나다 대법원은 몬산토의 손을 들어줬다. 본 인이 의도적으로 씨앗을 구입한 적도 없는데 밭에서 자란 작물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져야 했던 이 판결은, ‘내 땅에서 자란 씨앗은 내 것’이라는 오랜 농업의 상식이 법정에서 뒤집힌 사례로 남아 있다. 인도에서도 몬산토(현 바이엘)의 유 전자변형 면화 기술이 전체 면화 종자 시장의 약 95%를 장악하면서 로열티를 둘러싼 정부와 기업 간 분쟁이 이어진 바 있다.

- 로열티가 좌우하게 된 우리의 밥상

우리가 즐겨 먹는 청양고추조차 로열티를 내야 재배할 수 있으며, 팽이버섯과 양송이를 먹을 때마다 독일·일본·이탈리아로 사용료가 흘러 나간다. 참외, 배추, 단호박, 양파는 물론 콩나물까지 외국 종자에 의존하는 품목이 적지 않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농촌진흥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 가 해외에 지급한 종자 로열티는 총 454억 원에 이르렀다. 반면 같은 기간 우리가 해외로부터 벌어들인 로열티 수취액은 21 억 4천만 원으로, 지급액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벌어들인 로열티 중에서도 92%는 장미(19억 7천만 원) 한 품목에 집중 돼 있었고, 감귤과 딸기가 그 뒤를 이었다. 최근 10년으로 범위를 넓히면 해외로 유출된 종자 로열티는 1,357억 원을 넘어섰

고, 우리 식탁에 오르는 농산물의 약 70%가 외국 종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산화율을 품목별로 보면 버·보 리·감자·고추·배추·수박 등 주요 식량·채소 작물은 100%를 달성했지만, 감귤(4.1%), 포도(4.8%), 배(14.9%), 난(18.8%), 사과 (22.4%) 등 과수·화훼 분야는 여전히 저조하다.

로열티 증가로 인해 종자값이 오르면 농가의 초기 투자 부담이 커지고, 이는 소비자의 농산물 구매 가격, 즉 물가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는 식품 물가가 오를 때마다 기후위기나 유가 못지않게 종자 로열티가 거론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 2012년, 정부의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정부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 채소 종자 생산의 60~70%를 담당하던 흥농종묘와 중앙종 묘가 해외 자본에 잇달아 매각되며 국내 종자산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렸던 뼈아픈 경험 이 있다. 이 같은 경험을 반성하듯이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4개 부처는 총 4,911억 원을 투입하는 10년짜리 장기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골든시드프로젝트(GSP)’를 출범시켰다. 2020년 종자 수출 2억 달러, 2030년 3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2012년부터 10년간 진행된 GSP의 성과로는 955건의 신품종이 개발됐고, 수출 대상국은 24개국에서 70개국으로 세 배 가 까이 늘었다. 특히 국화 품종 ‘백강’은 절화 수명이 길고 병해에 강해 일본 품종을 빠르게 대체했으며, 2020년 이후 일본에 44 만 송이를 수출하고 베트남과는 7년간 3억 800만 원 규모의 로열티 계약을 체결했다. 딸기 ‘설향’ 역시 국내 점유율을 90% 이 상으로 높인 뒤 홍콩·싱가포르·태국 등 프리미엄 시장에 수출되고 있다.

이후 2021년 GSP가 종료됨에 따라 종자개발연구도 차츰 줄어들었다. 연간 품종보호권 등록 건수는 2023년 602건에서 2025년 436건으로 2년 연속 줄었고, 국내 종자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자체 육종이 아닌 단순 수입·판매에 그치는 구조도 좀 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내 1위 종자기업의 연구개발비(168억 원 안팎)는 바이엘(약 2조 원)이나 코르테바(약 1조 5천억 원)와 비교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국화 ‘백강’처럼 국내 기술로 개발한 품종이 해외에서 상업화된 뒤 다시 역수입되며 로열티 를 내야 하는 역설적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3년 5년간 1조 9,410억 원을 투입하는 제3차 종자산업 육성 종합계획 을 통해 기업 주도 연구개발로 방향을 틀었지만, 전문가들은 공공 연구와 민간 상업화를 잇는 기술이전 체계 혁신, 해외 지식 재산권 선점, 중견 종자기업 육성이라는 세 가지 과제가 함께 풀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종자 주권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

종자특허전쟁은 앞으로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기후위기로 재배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병해충에 강하며 이상기후에도 견디는 품종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씨앗을 스스로 개발하고 지킬 수 있는 나라와, 매번 로열티를 지불 하며 남의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한농대 학생들은 품종을 개발하는 육종가가 아니라, 개발된 품종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현장에 나간다. 그렇다 고 이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품종을 선택해 재배하느냐, 국산 품종을 쓸 것이냐 외국 품종을 쓸 것이냐는 결국 현장의 농업인이 매년 내리는 결정이다. 국산 품종의 경쟁력을 알고, 로열티 구조를 이해하고, 국산화율이 낮은 작물에서 기 회를 보는 눈을 갖추는 것. 그것이 종자전쟁 시대를 살아갈 우리 농업인에게 필요한 감각이다.

씨앗 한 톨에 담긴 특허와 로열티의 무게를 돌아보며, 한농대에서 농업의 내일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 본 기사는 원예산업신문, 한국농어민신문, 국민매일, 시사인IN의 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사회부 안세희 기자

배움의 문턱을 낮추다... <한농대 평생교육원>

한농대의 전문성을 지역사회와 농업현장으로 이다

농업은 먹거리와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기본 산업이자, 기 후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장 산업이 다. 오늘날 농업 현장에서는 재배기술뿐 아니라 경영, 유통, 가공, 스마트농업 등 다양한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박진기 평생교육원장은 평생교육원이 농수산 분야의 다 양한 지식·기술·정보를 전국의 농어업인과 지역사회 주민에 게 제공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해 설립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설립 취지를 바탕으로 평생교육원은 한농대의 농수산 분야 전문성과 교육 인프 라를 활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농수산 분야 ‘평생학습’의 기회를 넓혀가고 있다.

2026년에는 귀농·귀촌인, 농어업인,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 과수, 채소, 축산, 임업 등 17개 과정에서 총 912명 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과정은 대학 자체개설 과정 8개, 정 부 위탁사업 과정 6개, 지자체 협력 요청 과정 3개로 구성됐다.

평생교육원은 이 같은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이 현장 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익히도록 돕고 있다. 과 정마다 교육 목적에 맞춰 이론·실습·현장학습 등을 함께 운 영하며,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평생학습

박 원장은 평생교육원의 의미를 농업에 관심 있는 이들이 농업을 하나의 선택지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돕는 데서 찾았다. 그는 “농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가능 성 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평생교육원의 중요 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직장생활 이후 진로 전환을 고민하 거나 농업에 관심을 갖는 이들에게 평생교육원이 농업을 배울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수강생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서 로 다른 의미를 가진다. 농업을 처음 접하는 이들에게는 분야 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되고, 이미 현장 경험이 있는 농업인에 게는 최신 기술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평생교육원 과정은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한 정규 교육과정 과는 구분되지만, 수료와 이수를 통해 필요한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익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강생들은 각 과 정에서 배운 내용을 자신의 영농 계획이나 실제 경영·생산 활 동과 연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농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사 람은 기초를 익히고, 이미 현장에 있는 농어업인은 필요한 기 술과 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



한농대 평생교육원의 박진기 원장

한농대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과정

한농대 평생교육원의 강점은 농수산 전문대학으로서 갖 춘 교육 인프라와 분야별 전문성에 있다. 박 원장은 “한농대 는 농수산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실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 반이 있다”고 설명했다. 평생교육원은 재배 실습동, 식품가공 관련 시설 등을 교내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선도농가와 연계한 현장학습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기반 은 이론 설명에만 머무르지 않고, 과정별 목적에 맞춰 실습과 현장학습을 함께 구성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과정 구성에서도 드러난다. 평생교육 원은 자체과정, 위탁과정, 협력과정을 함께 운영하며 교육 수 요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자체과정에는 일학습병행과정, 스마트농업 과정, 임업자원 경영 소득화과 정, 청년 한우농가 영농 아카데미, 식량작물 전문가과정, 스 마트양봉실무, 관상어 과정, 힐링승마과정 등이 포함된다. 위 탁과정으로는 스마트 축산 전문기술인력과정, 현장실습교육, 식량작물 선도경영체 공모교육, 첨단기술 공동실습장, 성장 농역량향상프로그램, 전북 농업 마이스터 등이 운영된다. 협 력과정으로는 전북시민대학, 전주시 삼봉프로젝트, 장수군 농군사관학교가 마련돼 있으며, 장수군 농군사관학교내에 사 과다축밀식재배, 토마토 심화, 토마토 기초 과정이 운영된다.

대표적인 자체과정인 일학습병행과정은 과수, 농산물가공, 조경수생산, 채소, 특용작물, 화훼 등 6개 전공으로 구성된다. 해당 과정은 귀농·귀촌 예정자와 농업인이 품목별 경영 능력 과 최신 기술을 익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1월 교육 생을 모집하며, 지원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

된다. 박 원장은 면접 심사에 대해 “모집 인원이 제한되어 있 어 지원자의 역량과 상황과 수감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여건교육은 3월부터 12 월까지 매월 금·토요일 1박 2일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이버 교육도 병행된다.

정부 위탁사업 과정 중 하나인 현장실습교육(WPL)은 선도 농업인의 품목 전문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현장에서 배우는 실습 중심 과정이다. 평생교육원 공지에 따르면 현장실습교 육은 버섯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2026년 교육계획 에서도 버섯 과정으로 마련돼 있다. 해당 과정은 영농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품목별 기술을 익히고,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업을 넘어 농수산 전반으로 확장

2026년 평생교육원 과정은 식물, 축산, 임업, 레저, 수산 등 여러 분야를 포함한다. 올해 교육과정은 시설채소와 한우뿐 아니라 양돈, 양계, 양봉, 산림, 관상어, 농업경영 등 다양한 분야로 포함됐다. 이에 박 원장은 “농업 분야 전체를 보지는 취지에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며 “학교 자체 과정뿐 아니라 외부 수요를 반영한 위탁교육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는 과정으로는 식량작물선도 경영체 공모교육이 있다. 이 과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 지털 전환, 기후위기, 고령화 등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드론 등 디지털 농업기술 확산을 목표로 한다. 드론을 활용한 파종, 시비, 방제 등 식량작물 생산자 단체의 공동 농업경영 활성화를 돕는 내용도 포함된다.

수산 분야 교육도 눈에 띈다. 현재 관상어 과정은 관상어 산업의 고부가가치 분야인 아쿠아스케이프 기술을 중심으 로 지역민의 창업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운영된다. 박 원장은 하반기 8월경 해양어류 분야 교육과정도 추가로 운 영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원이 농업 중심 교육에서 수산 분야까지 교육 범위를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반기에도 이어지는 평생학습 기회

방학기간인 7월과 8월에도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은 이어 진다. 현장실습교육(버섯)과 식량작물 선도경영체 공모교육 은 3월 3일부터 상시 모집 중이다. 현장실습교육(버섯)은 8월 부터 10월까지 운영되며, 식량작물 선도경영체 공모교육은 4 월부터 10월까지 장기간 진행된다.

방학기간에 진행되는 교육 과정

- 식량농업 전문가과정 (모집기간: 6.1~6.21) 교육일정 7.1.~10.7.
- 스마트 양봉실무 (모집기간: 6.1.~6.21.) 교육일정 7.1~8.26.

양돈 스마트 축산 심화과정은 8월 3일부터 8월 14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한다. 해당 과정은 9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관상어 과정은 8월 10일부터 8월 28일까지 모집하며 교육은 9월 9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참가 방법은 첨부된 신청서를 작성 후 평생교육원에 메일, 팩 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평생교육원 사무실은 학생 회관 2층에 위치하였으며 사무실 연락처는 063-238-9724, 9727이다. 이밖에 교육과정별 세부 내용과 모집 일정은 한농 대 홈페이지 조직안내-부속시설-평생교육원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 원장은 향후 평생교육원이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 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AI와 로봇 이 많은 산업을 대체할 수는 있지만, 농업은 살아 있는 생물 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손이 필요한 산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먹고사는 문제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며, 농업은 식량 안보와도 연결되는 중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농업의 중요성이 지속되는 만큼, 평생교육원은 앞 으로도 스마트농업, 드론, 축산, 임업, 수산 등 농수산업 현장 의 변화와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발굴하며 평생학습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평생교육원의 지역주민 대상 조정 실습 프로그램

평생교육원은 한농대가 보유한 농수산 분야의 전문성과 교육 인프라를 바탕으로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농업에 관심 있는 이들이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이를 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와 농업 현장을 잇는 교육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다.

문화부 유희정 기자

학교와 현장을 잇는 조직, <한농대 산학협력단>

'가족회사'협약으로 졸업생 경력제 기술·경영 지원 확대

산학협력단은 대학이 산업체·정부·지자체 등 외부 기관과 함께 공동연구, 기술 이전,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의 산학협력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돕는 대학 내 전담 조직이다. 대학의 연구와 교육이 학교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과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다리' 역할을 한다.



산학협력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립중자원 워크숍

산학협력단의 역할

한농대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특별회계법인으로, 설립 근거는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다. 산학협력단은 학교가 산학협력 계약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춘 조직으로, 산업인력 양성, 연구개발 및 사업화,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보육지원 공동활용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

이러한 역할은 최근 '기업애로기술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가족회사 협약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농대 산학협력단은 졸업생 경영체를 대상으로 기술·경영 컨설팅을 지원하며, 학교와 농식품 산업 현장을 연결하고 있다.

김진진 산학협력단장(이하 산단장)은 산학협력의 역할을 “학교의 교육과 연구 결과가 외부와 연결되도록 돕는 브리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는 본연의 목적인 교육에 집중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연구 성과들이 사장되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을 외부와 연결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산학협력”이라고 덧붙였다.

졸업생 지원을 넓히는 '가족회사' 협약

가족회사는 산학협력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정보 교류, 산업자문,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기업 또는 경영체를 말한다. 이번 협약 대상은 한농대 졸업생이 운영하는 경영체로, 식량작물, 특용작물, 농수산물공, 스마트원에, 산업곤충, 수산양식 등 농어업 전 분야에서 선정됐다. 이는 특정 품목이나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졸업생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현장의 문제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2025년 자체 예산으로 기업애로기술 지원을 위한 '가족회사' 시범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5개 기업을 선정해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하고, 총 33건의 산업자문을 실시했다. 또한 수혜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지원 사업을 신규 발굴하는 성과도 올렸다. 일부 협약 기업의 경우 산학협력단과의 협력 이후 학교 발전기금 기부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는 가족회사 협약이 단순한 일회성 컨설팅에 그치지 않고, 학교와 경영체 간 지속적인 관계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산학협력단은 올해 '기업애로기술 지원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가족회사 협약은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3월 공모를 거쳐 선정된 졸업

생 경영체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 체결 이후부터 8월까지 해당 분야 교수진이 경영체를 직접 방문해 기술 및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학협력단은 지난 4월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12개 경영체 선정 사실을 알렸으며, 이후 추가선정을 통해 현재 총 15개 경영체와 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한 상태라고 밝혔다. 협약 대상은 한농대 졸업생이 운영하는 경영체로, 식량작물, 특용작물, 농수산물공, 스마트원에, 산업곤충, 수산양식 등 농어업 전 분야에서 선정됐다. 이는 특정 품목이나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졸업생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현장의 문제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산단장은 이번 사업이 기존 졸업생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한농대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차원의 지원은 주로 '졸업생 영농·영어 정착 우수과제 공모 사업'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 사업이 졸업생의 정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성격이 강했다면, 가족회사 협약은 졸업 이후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교수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함께 해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산단장은 이 사업의 출발점에 대해 “졸업생들이 영농에 정착한 뒤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경영과 기술”이라며 “우리 교수님들이 그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니 직접 농장을 찾아가서 졸업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도와주자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일종의 '졸업 후 AS' 개념으로 설명했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졸업과 동시에 끊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영체 운영 과정에서 다시 학교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기술과 경영을 함께 보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가족회사 협약의 핵심은 현장 맞춤형 컨설팅이다. 컨설팅은 졸업생 경영체의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분야에 적합한 교수를 매칭해 진행한다. 한 경영체는 매칭된 교수에게 최대 3회까지 컨설팅을 받을 수 있으며, 교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적·경영적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컨설팅은 기술과 경영 두 축으로 이루어진다. 기술 분야에서는 생산성 향상, 생산비 절감, 생산 관리 안정화, 노동력 절감 등 생산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둔다. 경영 분야에서는 수익 구조 다변화, 소비 트렌드 분석, 맞춤형 출하 전략, 산지 유통 경로 다각화,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한다.

산단장은 “기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더라도 결국은 경영 이야기를 하게 된다”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기술 지원이 아니라 경영까지 함께 살피는 토털 컨설팅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농업 현장의 문제는 생산 기술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판로와 수익성, 노동력, 투자비, 시장 변화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컨설팅 성과는 주로 매출과 수익을 기준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뚜렷한 성과를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연구지원체계 개선과 운영성공

산학협력단의 활동은 가족회사 협약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산학협력단은 제한된 예산과 인적 자원 속에서도 연구지원체계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꾸준히 정비해 왔다. 연구지원 관련 규정을 30여 차례 제·개정하며 연구자 지원 제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연구과제 수주 확대를 지원했다.

그 결과 2025년 한농대는 총 40억 7690만 원의 연구비를 확보해 전국 전문대학 중 연구비 수혜 실적 1위를 기록하였다. 전임교원 수를 보더라도 52명으로, 교수 1인당 약 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은 셈이다. 상당수 전문대가 사실상 연구비 절벽 상태에 놓여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주목할 만한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지원체계 평가에서 우수사례 부문 만점을 받았으며, 연구지원 만족도 조사와 교육·상시 모니터링 부문에서도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한농대의 연구지원체계 평가는 전국 130여 개 전문대학 중 최상위 수준이며, 4년제 대학과 비교해도 중상위권에 해당한다. 소규모 국립대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이 같은 성과는 대학의 연구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와 연구지원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온 결과로 볼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지원 만족도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방향을 찾아왔다.

외부협력 사업과 현장 지원 확대

산학협력단은 공공기관과의 협력 사업도 주도해 왔다. 대표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을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수행했으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한국연구재단 사업으로 「라오스 북부 국립대학 원예학과 개설 및 지역사회 개발 청년층 육성 채소 생산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원과 창업보육센터 등 부속시설의 안정적인 외부사업 수행을 위해 인건비 등 운영비를 연중 지원하고, 주요 위탁교육 사업을 산단회계로 일원화해 추가 운영예산 확보와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며, 이 밖에도 산학협력단은 외부 공모전·사업 공고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역할확대와 향후 방향

산학협력단의 역할 확대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다.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농대의 목표가 정에 농어업인력 양성이라면, 「산학협력법」의 목적은 산업인력 양성 및 산업자문, 연구개발, 사업화, 기술이전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산학협력단은 이러한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동시에 대학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 운영예산의 주요 재원인 간접비 수입만으로는 각종 사업 지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소규모 대학으로서의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으로서의 장점을 활용한 공공기관 네트워크 확대와 대외협력 조직 강화를 통해 구체적인 성장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산단장은 “한농대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학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산학협력단의 역할을 확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학 및 부속시설과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며, 자유롭게 산학협력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발굴할 수 있는 창구 마련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1만 졸업생이 모이는 농식품 플랫폼을 향해

산학협력단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끝으로 김진진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의 장기 비전으로 '한국 농식품 분야의 토털 플랫폼'을 제시했다. 그는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충해 한국 농식품 분야에서 하나의 토털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싶다”며 “그 허브에 우리 1만 명의 졸업생들이 위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학협력단은 졸업생 경영체와 학교, 외부 기업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반을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는 졸업생 기업이 창업하고 교류할 수 있는 독립 공간이나 센터 조성도 구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졸업 후 각자의 현장으로 흩어지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와 졸업생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한농대 산학협력단은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라 학교와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통로다. 연구지원과 외부협력, 현장 맞춤형 지원 사업들을 통해 대학과 산업 현장을 잇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학협력단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농대 산학협력단 사무실은 학생회관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실 연락처는 063-238-9747이다. 이밖의 자세한 정보는 한국농수산대학교 공식 홈페이지 내 '조직안내-부속시설-산학협력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한농대 산학협력단 제공 자료와 김진진 산학협력단장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문화부 유희정 기자

청창농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한농대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 홈페이지(<http://afbi.kr/index.php>)

영농 창업의 '데스밸리'를 넘어 고부가가치 바이오 소재 시장을 개척하다

창업보육센터의 필요성, 왜 학내 전문 보육 인프라가 필요한가?

현대 농생명 산업과 스마트 영농은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창업가들은 초기 자본 부족과 전문 연구 인프라, 시제품 제작 플랫폼 부재라는 장벽에 부딪힌다.

아이디어는 있지만 상품으로 구체화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창업 초기 3년은 데스밸리다. 특히 농수산 창업은 생물자원과 가공 공정을 다뤄 초기 실험 시설과 성분 분석 장비 확보에 비용이 많이 들어 진입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 차원의 체계적인 창업 보육과 맞춤형 사업화 자금 지원은 청년 창업농의

농촌 정착과 고부가가치 농수산업으로의 안정적 진입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다.

창업보육센터의 역할

우리 대학 창업보육센터(이하 센터)는 산학협력단, 평생교육원과 함께 학우 및 졸업생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조하는 교내 핵심 지원 센터다. 센터는 농수산 특화 분야를 비롯하여 정보통신, 바이오, 6차 산업 전후방 분야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 역량이 부족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 창업 기업(창업 후 3년 이내)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시장에 안착시킨다.

센터는 권덕호 센터장을 필두로 창업 보육 전문 매니저들이 원팀을 이루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 이들은 입주 기업은 물론, 학내에서 창업을 준비 중인 비입주 학생 창업가와 예비 청년 농업인들이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비즈니스 모델을 시장 반응에 맞춰 수정, 전환하는 피보팅(Business Pivoting)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을 설계한다. 경영 컨설팅부터 법률 자문, 세무 회계, 마케팅 로드맵 수립에 이르기까지 기업 운영의 전 과정에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관의 주요 지원사업, '원스톱' 보육 프로세스

센터의 지원 사업은 청년 창업가들이 제품 개발과 비즈니스 고도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력, 기술적 자립 기반을 닦아주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인프라 및 공간 지원이다. 초기 스타트업에게 사무실 임대료와 관리비는 부담스러운 고정 비용이다. 센터는 독립형 전용 보육실(사무실)을 무상 또는 시세 대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며, 대형 공동 장비실, 회의실, 프레젠테이션 룸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물리적 인프라를 입주 기업에게 지원한다.

둘째,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 및 컨설팅 시스템이다. 청년 창업가들은 법률적 검토 미비, 특허 관리 부실, 세무 처리 미숙함 등을 겪는다. 센터는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마케팅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인력단을 상시 운영한다.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가들은 언제든지 자신의 취약 분야에 대해 1:1 매칭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 오류를 잡거나 비즈니스 모델 결함을 사전에 점검한다.

셋째, 실질적 사업화 자금 및 외부 네트워크 연계 지원이다. 좋은 아이디어가 시제품으로 나오기까지는 많은 테스트와 재료비가 소요된다. 센터는 자체 예산을 통해 시제품 제작비, 패키지 디자인 개발비, 제품 성분 분석 및 인증 비용을 보조하는 특화 사업을 매년 운영한다. 나아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의 대형 지원 사업과 청년 기업들을 연결해 외부 투자 유치나 대규모 R&D 자금 확보를 뒷받침한다.

대표적 성공사례: 버섯 지식과 곤충 산업을 융합시킨 졸업생 신성진

센터의 보육 시스템은 우리 대학 출신 청년 기업가들의 시장 성과와 지식재산권 확보로 그 실효성을 증명하고 있다. 대표 사례는 한농대 버섯 전공 졸업생 신성진 씨다.

신 씨는 갈색거저리(밀웜)를 기반으로 반려동물 및 특수 파충류용 고기능성 먹이와 프리미엄 펫푸드 원료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을 이끌고 있다. 초기에는 밀웜을 사육해 생물 상태나 단순 건조 형태로 유통했으나, 단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단순 원료 판매는 대형 사료 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웠다.

이때 돌파구가 된 것은 버섯학 전공 지식이었 다. 그는 곤충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밀웜 배 지(사육 부산물) 에 주목했다. 전공 수업에서 배운 버섯 균사체 배양 기술과 미생물 제어 이론을 곤충 사육 공정에 접목한 결과, 밀웜 배지를 활용해 동충하초를 재배하는 전공 융합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신 씨는 ‘대학에서 배운 버섯 전공 지식이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의 특화 사업 지원을 통해 특허 및 상표권 출원을 이뤄 내며, 시장에서 신뢰받는 브랜드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도와주신 한농대와 센터 직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전공 지식을 결합한 아이디어만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법적 권리를 보호받으며 실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과정은 청년 창업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다. 신 씨는 센터가 주관하는 대외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했고, 센터는 그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액셀러레이팅(집중 성장 지원)을 시작했다.

센터는 그에게 시장성 분석 전문가를 매칭해

타깃 소비층을 재설정하도록 도왔으며, 정부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법과 모의 IR 발표 준비를 1:1 로 훈련시켰다. 가장 큰 성과는 센터의 예산 지원으로 제품의 공인 성분 분석을 완수해 객관적 데이터와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다. 나아가 기술의 독점적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특허 및 상표권 출원 전 과정을 센터 연계 변리사를 통해 완수했다.



창업보육센터의 창업지원사업으로 개발된 ‘파충류용 특화 슈퍼푸드 제품’과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밀웜 트리트 제품’

창업보육센터의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는 하반기 늘어나는 청년 창업 수요에 대응하고자 상시 및 정기 보육실 입주 상담 및 매니저 밀착 인터뷰 시스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공개되는 보육실 현황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을 갖춘 예비 청년 기업가들을 수시로 발굴한다.

하반기 보육실 입주 모집 대상은 농수산 특화 기술 및 스마트팜, 바이오,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 분야의 원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독립된 사무실 공간이 필요한 본교 재학생(학사 학위 과정 포함)과 졸업생,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의 초기 기업이다. 센터의 내부 심사(서류 평가 및 발표 심사)를 거쳐 최종 입주 기업으로 선정되면, 즉시 전용 사무 공간이 배정되며, 센터가 국비와 교비로 확충한 첨단 분석 연구 기자재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센터의 2026년도 신규 사업: ‘창업 실무 아카데미’

인프라 제공과 입주 지원 외에도, 센터는 2 학기 개강과 동시에 전교생의 창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오프라인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운

영할 예정이다. 그 중심에는 9월 초 공식 모집 공고가 게재될 2026 하반기 농수산 기술 창업 실무 아카데미가 있다.

본 아카데미는 현업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형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①비즈니스 모델의 시장 검증 및 고도화 방안, ②정부 지원 사업계획서 (청창사, 예창패 등) 작성 실무 스킬, ③스마트 농업 테크와 결합한 영농 창업 연계 전략, ④농수산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브랜드 네이밍 및 스토리텔링 마케팅 기법 등이다.

향후 방향 및 목표

창업보육센터는 공간 임대 기관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센터는 향후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국책 연구 과제 기술을 역량 있는 학내의 청년 기업에게 스핀오프(Spin-off,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별도의 기업으로 독립시켜 사업화하는 방식)형태로 이전하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 및 지역 지자체, 대형 농업 바이오 벤처캐피털(VC)과의 투자 네트워크를 엮어내는 산학연 융합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했다.

위크부 박재현 기자

[칼럼] 청년 농창업,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까? - 막연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 -

최근 농업은 단순히 농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넘어, 기술과 데이터, 콘텐츠, 브랜드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을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보는 청년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졸업 후 자신의 농장을 운영하거나 농업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 특히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은 장기현장실습과 전공 교육을 통해 현장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만큼, 자연스럽게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다.

하지만 ‘창업을 하고 싶다’는 마음과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많은 학생들이 창업을 막연한 꿈으로만 생각하거나, 큰 자본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청년농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공적인 창업은 거창한 시작보다 철저한 준비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청년농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무엇보다 시작해야 할까.

〇무엇을 키울지 보다 중요한 질문

창업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무엇을 재배할까?”이다. 딸기, 토마토, 샤인머스켓, 한우, 스마트팜... 수익성이 높은 품목을 먼저 찾는 학생들도 많다. 하지만 실제 농업 현장에서는 “무엇을 키울 것인가”보다 “왜 그 작목을 선택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같은 딸기를 재배하더라도 누군가는 대형마트에 납품하고, 누군가는 카페를 함께 운영하며, 또 다른 사람은 체험농장과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한다. 즉, 같은 작목이라도 농장의 모습은 모두 다르다. 최근에는 생산만 하는 농업보다 가공, 체험, 교육, 온라인 판매를 함께 운영하는 복합농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결국 창업은 작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농업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〇지금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이다

청년농 창업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창업 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라는 질문부터 한다. 물론 농지는 물론 시설과 장비,

운영비까지 고려하면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선배 농업인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돈보다 경험이 먼저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도 청년농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서는 재배 기술과 현장 경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시작하면 병해충 관리, 환경 조절, 판로 확보, 노동력 관리 등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한꺼번에 마주하게 된다. 반대로 충분한 현장 경험을 쌓은 사람은 같은 문제를 만나더라도 훨씬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다.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에게 장기현장실습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습은 자신에게 맞는 농업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다. 연구기관에서 실습한 학생은 연구직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농가에서 실습한 학생은 실제 재배의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다. 어떤 학생은 스마트팜을, 또 다른 학생은 가공이나 유통 분야를 꿈꾸게 된다. 이러한 경험들은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〇학생일 때 가장 많이 해봐야 하는 것

창업 준비는 졸업 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생활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것은 다양한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다. 장기현장실습은 물론이고 농업박람회, 세미나, 연구기관 견학, 선배 농가 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농업을 직접 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농업박람회는 최신 농업 기술과 다양한 청년농 사례를 한 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최근 박람회에서는 스마트팜 기술뿐 아니라 브랜딩, 디자인, 온라인 마케팅, 농산물 가공 등 농업과 결합된 다양한 산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거나 강연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 농업은 기술뿐 아니라 경영 능력도 중요한 산업이

다. 생산을 잘하는 것만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인 만큼 소비자를 이해하고 시장을 분석하는 능력도 함께 길러야 한다.

〇브랜드를 만드는 농업인이 늘고 있다

과거에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면 자연스럽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같은 품질의 농산물이라도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어떤 브랜드인지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이 달라진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의 농장을 직접 소개하는 청년농들이 늘어나고 있다. 생산 과정을 기록하고 소비자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브랜드는 단순히 로고나 이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왜 농사를 짓는지,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에게 농산물을 전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다. 학생 때부터 자신의 관심 분야를 기록하거나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경험은 앞으로 큰 자산이 될 수 있다.

〇정부 지원사업은 '기회'이지 '목표'가 아니다

청년농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초기 영농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로 많은 청년농이 활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창업자금 융자, 스마트팜 지원사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원사업만을 목표로 창업을 준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지원은 창업을 돕는 수단일 뿐,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재배 기술과 경영 철학, 그리고 꾸준히 배우려는 자세다.

〇완벽한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준비

창업에는 정답이 없다. 누군가는 졸업과 동시에 창업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농업회사에서 경험을 쌓은 뒤 창업하기도

이를 통해 학우들이 전공 수업과 실습을 통해 배운 농수산 이론과 신기술이 졸업 후 흩어지지 않고, 창업보육센터의 다각적인 지원 사업들을 거쳐 실제 매출을 일으키고 고용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6차 산업 비즈니스로 실현되는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우리 대학 내에 뿌리내리는 것이 목표다.

교내에 구축된 전문 창업 지원 체계는 학우들이 시장에 나서기 전, 필요한 역량과 준비를 갖추도록 돕는 디딤돌이다. 독립된 사무 공간 부재로 고민하거나, 영농 아이디어를 어떻게 사업화해야 할지 고민하는 학우가 있다면 보육실 입주 상담은 물론 센터가 운영하는 다양한 대외 지원 사업의 문을 두드려보자.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농장을 이어받고, 또 다른 사람은 작은 임대농장에서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남들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는 것이다. 학생인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준비는 경험을 쌓고, 사람을 만나고, 꾸준히 배우는 것이다. 창업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생활 동안의 작은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이다.오늘의 실습, 한 번의 박람회 방문, 한 권의 책, 한 번의 인터뷰가 훗날 자신만의 농장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청년농 창업은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작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지금, 학생인 현재의 시간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 학생 때부터 실천할 수 있는 창업 준비 Check List

- ☐ 장기현장실습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 쌓기
- ☐ 관심 있는 작목 2~3개 선정해 심층 조사하기
- ☐ 농업박람회·세미나 연 2회 이상 참여하기
- ☐ 농업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준비하기
- ☐ SNS·블로그로 농업 콘텐츠 기록해보기
- ☐ 정부 청년농 지원사업 내용 미리 살펴보기
- ☐ 관심 있는 청년농 브랜드 벤치마킹하기

청년농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저마다 다르지만, 방향을 잡는 데 이 기사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 위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창업 준비가 한 걸음씩 구체화 될 것이다.

위크부 나은빈 기자

2026년 2분기 교수동정

▶ 이수협 교수(축산학부-양돈 전공)

이수협 교수 연구팀은 지난 7월 24일 대한한돈협회 김제지부에서 김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AI 기반 돼지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현장 시연회와 교육을 진행했다. 본 교육은 농촌진흥청이 운영하고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추진하는 ‘2026년 농업기술 산학협력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충남대 정선욱 교수 연구팀과 공동 개발한 기술의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스템은 RGB·열화상 카메라와 음향센서로 돼지의 체온 변화, 기침 등 호흡기 이상, 자돈 압사 위험을 실시간 감지하고 이상 시 농가에 알람을 제공한다. 이 교수는 “스마트양돈기술은 질병 조기 발견과 신속한 농가 대응 지원이 핵심”이라며 “현장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AI 정확도를 높여 실제 농장 활용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수협 교수의 연구팀은 충청권과 전라권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 실증을 이어가며, 농가 의견을 반영한 사용자 중심 시스템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수협 교수의 ‘AI 돼지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교육 현장

- 원예학부 신임 교수 임용 -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에서 8월 3일 신규 교원 임용식이 열렸다. 이주명 총장은 화훼 전공에 선임된 강이로 조교수와 원예환경시스템 전공에 선임된 박규현 조교수 두 신규 교원에게 임용장을 수여하였다.

▶ 강이로 교수(원예학부-화훼 전공)

강이로 교수는 주로 자생식물 및 관엽식물의 개화생리, 생육·발달, 멸종위기 난류의 복원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연구원으로, 2018년에는 본교 화훼전공을 졸업하였으며, 2025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의 미국 델라웨어대학교 식물및토양과학과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였다.

▶ 박규현 교수(원예학부-원예환경시스템 전공)

박규현 교수는 주로 온실작물 재배생리 및 생장모델링, 영상기반 표현체형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2023년 1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초기조기반과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24년 3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본교 외부초청강사로 원예학부에서 ‘시설원예총론’을 강의한 바 있다.

두 교수는 2026학년도 2학기부터 강단에 설 예정이며, 이번 임용으로 원예학부는 원예작물 분야의 교육·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왼쪽부터) 박규현 조교수, 이주명 총장, 강이로 조교수의 임용장 수여 기념촬영

2027학년도 신입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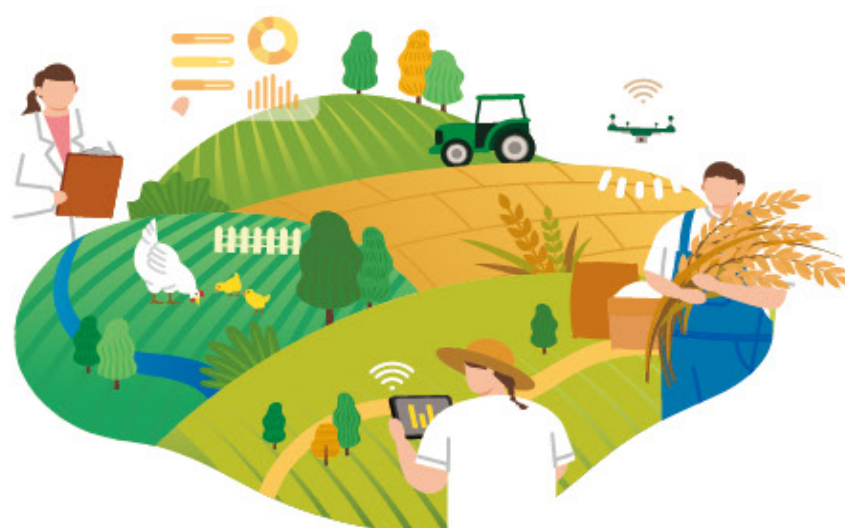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하는
창의 인재 육성 대학

수업료, 기숙사·급식비 등 전액 국비지원

2학년 농어장 현장실습



모집일정

구분	원서 접수	합격자 발표
수시 1차	2026.9.7.(월) 09:00 ~ 9.30.(수) 18:00	2026.11.18.(수)
수시 2차	2026.10.12(월) 09:00 ~ 10.23.(금) 18:00	2026.12.16.(수)

모집전공

작물·산림학부	식량작물, 특용작물, 버섯, 산림, 조경
원예학부	채소, 원예환경시스템, 과수, 화훼
축산학부	한우, 낙농, 양돈, 가금, 말산업반려동물
농수산융합학부	농수산푸드테크, 농수산비즈니스, 산업곤충, 수산양식

모집인원 570명

수시 1차				수시 2차
일반전형	농수산전형	사회통합전형	지역균형전형	일반전형
231	124	18	59	138

문의

063-238-9621-3 / www.af.ac.kr